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53.95	↓ 코스닥	703.80
	(-63.42)		(-24.49)
↓ 금리 (미국 9년)	2.572	↑ 환율 (원·달러)	1466.20
	(-0.001)		(+13.50)

글로벌 수업체  
신형 전기차 라인업  
대거 공개  
04



## 소비 부진에 물가 치솟고, 등록금 오르는데 대출 옥죄다

### '사면초가' 민생 경제

12·3사태 후 대형마트 매출 10% ↓  
연간소비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  
환율급등에 외식업체 가격 줄인상  
대학교 등록금 인상도 줄이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통계 집계 시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주방거리에서 주방 용품이 가득 쌓여있다. /뉴시스

국민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지표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12·3사태가 벌어진 지난달 대형마트 소매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10% 가까이 급감했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버텨내지 못하고 음식값을 인상하고 있다. 또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 행렬에 속속 합류하는 데다 은행권은 중산층·서민의 보루 중 하나인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한 지 보름도 안된 시점에 이른바 '관세 폭탄'을 개시했다.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을 조준 중이고 우리 차례도 예정돼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각국이 찬 바람 몰아치는 경제상황에 맞서 적극 방어·역공 태세에 돌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기능이 사실상 상실돼 있어 더욱 암울하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연간소비는 최근 21년 사이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소비(소매판매)가 2023년에 비해 2.2% 줄었는데, 이는 신용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 수가 360만 명에 달한 2003년(소비 -3.2%)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해 12월만 보면 대형마트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9.3%나 감소했다.

소비 부진이 극명한 상황에 프랜차이즈 등의 외식업체는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스타벅스와 풀바셋을 비롯해 버거킹, 동서식품, 매일유업, 오뚜기, 대상 등이 가격 올리기 동참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 등으로 원재료 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두 가격 오름세에 따른 커피 값 인상이 두드러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아라비카커피의 평균 거래가격은 톤(t)당 7368.9달러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70% 넘게 뛰었다. 인스턴트 및 저가커피 원료로 주로 쓰이는 로부스터 커피의 t당 평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5213.5달러로

61% 올랐다. 가게 사정은 갈수록 쪼들리는데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24일 기준 100조5978억 원으로, 지난해 말(103조6032억 원)보다 3조 원 넘게 감소했다.

지난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대학들은 올해 '인상'으로 돌아섰다. 서울 지역에서 인상을 결정한 곳은 연세대(4.98%), 고려대(5.0%), 한양대(4.9%), 중앙대(4.95%), 이화여대(3.1%), 한국외대(5.0%), 서울시립대(5.49%), 국민대(4.97%) 등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에서 50여 곳이 2025년도분 등록금을 올렸다. 미정인 120여 대학 중 20곳 이상이 동결 탈피 기조에 추가로 뛰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와중에 미국발 찬 바람이 불어닥칠 기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다음 관세 표적이 유럽연합(EU)이라고도 했다.

미 행정부가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태까지 전화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 사법리스크 족쇄 툼 이재용 경영 복귀로 '뉴 삼성' 탄력

###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최지성 등 피고인 13명 무죄 선고

그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며 경영복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등기이사 복귀와 신사업 중심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그간 밟아왔던 '뉴삼성'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 ◆2심 무죄, 사실상 사법리스크 해소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게 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중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

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

아직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통상 상고심은 법리적으로 위법한 게 없으면 사실관계는 인정될 것으로 본다.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뒤집히는 어려울 것이라 시각이 우세하다.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컨트롤타워 재건 촉각

8년간 이재용 회장의 발을 묶었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 회장은 조만간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4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딥시크·트럼프 관세정책에 금융시장 출렁

코스피 2.52% 코스닥 3.36% ↓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강세 심화

코스피가 '딥시크 쇼크' 여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로 2450선까지 밀렸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1470원을 돌파하는 등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2%(63.42포인트) 하락한 2453.9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93%(48.63포인트) 내린 2468.74로 출발했고, 이후 낙폭을 키우며 장중 3.17%까지 밀려 2437.61까지 떨어지

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캐나다산 석유·천연가스는 10%),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 대만 가권지수, 홍콩 항셱지수 등 주요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관세 전쟁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며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으로 1460원을 돌파한 채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147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도

증시 하락을 부추겼다. 외국인은 8707억원, 기관은 3729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개인 투자자만 1조127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급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4.40%), SK하이닉스(-4.17%), 삼성전자(-2.67%), 현대차(-1.94%) 등이 하락했다. 특히 LG전자는 장중 한때 전날 대비 7.84% 내린 7만7600원까지 떨어지며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7만8200원(-7.13%)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6%(24.49포인트) 내린 703.80으로 마감했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 안철수 "20조원 규모 AI 및 민생 추경 긴급 추진해야" /사진 뉴시스  
▲ 송미령 장관 "설 이후에도 가격 급등 품목 할인 지원 추진"

▲ 대선출마 이준석, '정치 여정 담은 영화' 3월 개봉  
▲ 최상목 권한대행 "野 반도체특별법 논의 제안 환영"

▲ 해군기동합대사령부 창설...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 정부, 한달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집중 방역 나선다



# “노동계, 주52시간 제외조항 오해… 불합리 규제 고치자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반도체 주52시간제 제외 토론

이재명 대표 “쌍방 오해 풀어야”  
반도체특별법 통과 의지 드러내

‘찬성’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기술 추월 땐 제조경쟁력 하락”

‘반대’ 화성식품노조 김영문  
“근로시간, 경쟁력 약화 근거없나”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와 중국 AI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AI 모델이 던진 충격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좌장을 맡아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의 반도체 특별법 삽입 여부를 놓고 팽팽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앞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자 여야 가리지 않고 반도체 인프라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핵심 쟁점은 반도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근기법)에 명시된 ‘주52시간제’ 적용의 제외 여부다.

민주당은 특정 산업의 특정 인력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토론회의의 안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로 오르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찬성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을 최대한 좁혀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쌍방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노동계에 선 법 개정을 통해 (사측이) 장시간 노동 시켜서 이에 따른 이득을 취하려고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닐까라고 오해를 한다”며 “경영계 측에선 충분히 대가를 지급할 것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은 (노동계의) 오해이고 우리만 형식적인 규제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정리했다.

민주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이른바 ‘칩스3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법안 설명을 하면서 꼬리가 뭉뚱을 흔들고 있다는 취지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칩스3법을 만들고 발의하면서 기업, 협회, 학계,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했고 가급적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주52시간 적용 제외는 전혀 요구된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보도 되더니 쟁점으로 등장해서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산은법 개정이 뒤로 밀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이후 토론에선 찬반 패널의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찬성 측의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을 할 때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정해진 시간을 채우면 퇴근하기 때문”이라며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개발해야 하고 문제 해결에 창의력까지 발휘해야 하는데 시간 기준에선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과 연구·개발은 특성이 많이 달라서 제도상 구별해야 한다”며 “반

도체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반도체 기술 개발 안하던 미국이 이제 기술 개발하고 중국은 턱밑까지 왔다. 기술 개발에서 추월당하는 순간 제조시설 경쟁력도 떨어진다”며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김영문 화성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진정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근로 시간이라는 근거가 있다. SK하이닉스는 주 최대 52시간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다. 지금하는 체계가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유연근무제 도입 이후 평균 43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제품을 통해서 많은 영업이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간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중요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의 고소득의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예외로 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왜 반대하냐고 노동계 측에 물었다.

노동법 연구자인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교수는 “기존 제도에서 재량근로제가 있다. 특정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는 제도로, 현 제도에서 없지 않다”며 “다만, (근기법의) 예외를 풀는 것이 아니라 재량근로제 요건을 확대한다거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조치, 연가 보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과 반대 측 패널이 기존 근기법에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이 있음에도 주52시간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삼성글로벌리서치의 김태정 상무는 “3개월 선택적 근로제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장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 전문직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이들이 이직을 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의가 부담이 되면 신청이라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강한 건강 보호조치를 세울 것이고 전문가와 함께 과다근로 예방, 휴가 등 휴식권 확보, 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보상 체계도 넓고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기업의 경쟁력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반도체특별법 공론화… 업계 ‘통과’ 기대감

정치권·기업·노동계 치열한 공방  
이재명, 찬·반 의견 좁혀볼 것 제안

반도체 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반도체특별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그동안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 시간 제한을 예외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의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적 AI 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반도체특별법이 덩달아 힘을 얻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어떻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제로 열렸다. 차기 대선 후보 중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확보한 이 대표가 주최한 만큼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신기술 연구개발 분야를 노사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기존 노동법에 예외를 둔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노동계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 협상 테이블에 올랐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도체 산업 중사 연구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주

장하나, 민주당에서는 수용 불가를 내걸었다.

이 대표가 직접 주최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가 노동시간을 중점으로 다루면서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찬성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을 모두 경청하고 좁혀볼 것을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이 쟁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꾀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적극적인 이번 토론회 개최는 민주당 당론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며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시간 유연화 말고도 인프라구축과 세제 지원 등에서 반도체 기업이 꼭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오픈AI 알트먼, 카카오 정신아 만난다

알트먼 오픈AI CEO, 오늘 방한  
비공개 개발자 행사 ‘빌더 랩’ 참석  
이후 카카오 기자간담회 참석 예정

알트먼 오픈AI CEO(사진)가 4일 하루 방한한다. 지난해 1월 방한 후 1년만이다. 이번 방한에서 알트먼이 카카오 기자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IT업계는 오픈AI의 카카오와의 협업과 한국지사 설립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알트먼 CEO는 4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개발자 행사 ‘빌더 랩(BuilderLab)’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오픈AI 개발자들이 직접 기술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최 장소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다. 알트먼은 빌더 랩에 참석한 후 카카오 기자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알트먼은 카카오 기자간담회 전후로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오픈AI와 카카오의 협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회사 AI 사업 방향을 발표한 뒤 올해 중 새로운 AI 서비스 카나나(Kanana)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AI 어시스턴트인 카나나는 현재 카카오 내 일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IT업계에서는 카나나가 챗GPT를 바탕으로 출시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가 모델 오케스트레이션(Model Orchestration) 전략을 취하



고 있었던 만큼 챗GPT를 인식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정 대표 외에도 알트먼이 다른 인사를 만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AI 개발에 필수적인 AI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HBM을 납품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이 가장 유력한 만남 상대다.

지난해 4월 아시아 최초로 일본 도쿄에 오픈AI가 지사를 내고 이후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양 지사를 추가한 만큼 한국지사 설립 가능성도 초미의 관심사다. 오픈AI는 지난 4월 아시아 최초로 일본 도쿄에 일본 지사를 설립했다. 이후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양 지사를 설립했다.

AI 데이터센터 설립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진행했던 KDB산업은행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때문으로, 오픈AI와 산업은행은 MOU를 통해 오픈AI가 국내 데이터센터 임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산업은행이 협력하기로 했다.

알트먼은 서울에 1박2일 머물 예정이다. 3일 일본 도쿄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난 후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일정을 마친 후에는 6일 인도 뉴델리, 7일 독일 베를린, 10일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 등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현 기자

## 에코프로비엠·리가켄바이오 등 급락

» 1면 ‘딥시크·트럼프 관세…’서 계속

개인은 295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인 각각 1909억원, 100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레인

보우로보틱스(3.34%)만 유일하게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9.16%), 리가켄바이오(-8.14%), 삼천당제약(-7.17%), 알테오젠(-5.11%)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

스피는 관세 전쟁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맞이했다”라며 “트럼프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우려에 2차전지가 급락했으며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우려에 반도체도 약세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지난해 소매판매 2.2% ↓ 카드대란 이후 최대폭 감소

통계청, '연간 산업활동동향' 발표  
광공업·서비스업 중심 생산 증가  
설비투자 호조... 건설부분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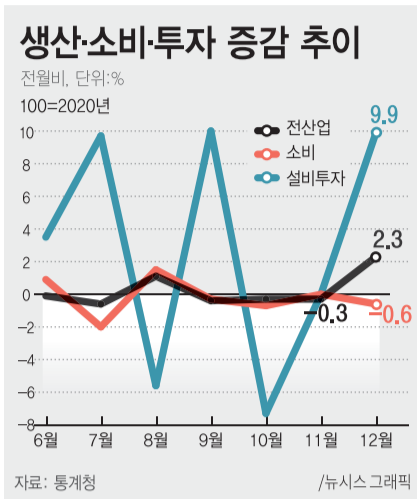
지난해 국내 소비가 최근 21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연간 소비가 최근 3년 연속으로 감소했는데 감소 폭은 2022년에 비해 2023년이, 2023년에 비해 2024년이 더 컸다. 다만,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늘어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매판매(소비)는 전년대비 2.2%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2002~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2003년(-3.2%) 이래 최대 폭 감소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에서 1년 전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소매업태별로는 전문소매점(-3.4%),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1%), 슈퍼마켓 및 잡화점(-5.9%), 백화점(-3.3%), 대형마트(-2.3%)에서 판매가 줄었다. 반면 무점포소매(2.4%), 면세점(3.1%)은 판매가 늘었다.

최근 월별 소매판매는 지난해 9월(-



0.3%)와 10월(-0.7%) 뒷걸음질한 뒤 11월(0.0)에도 증가로 전환하지 못했다. 이어 12·3 사태가 발생한 12월(-0.6%)에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처럼 소비 추이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의 2024년도 큰 폭 감소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를 억제하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했다.

반면, 지난해 전(全)산업생산지수와 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1.7%, 4.1%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늘면서 호조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4.1% 증가했다. 부문별로 전기장비, 1차금속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으나 반도체, 의약품 등에서 증가했다.

광공업 출하는 0.5% 증가했다. 내수 출하가 2% 줄었지만 수출 출하가 4% 늘었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2.9%로 전년대비 1%포인트(p)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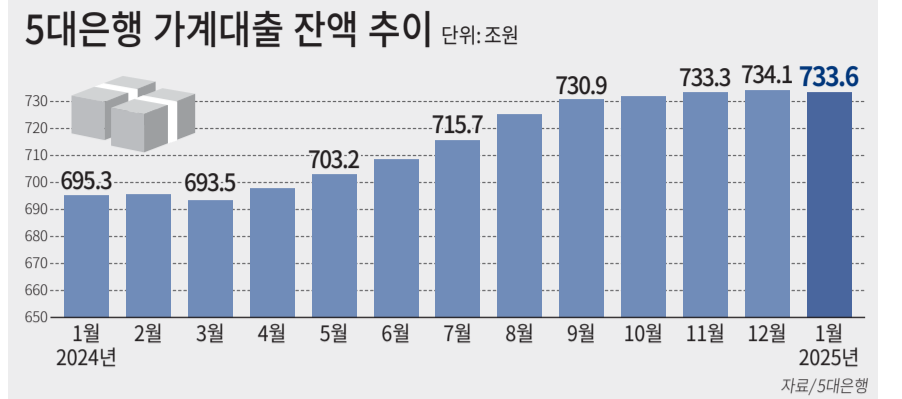
설비투자 역시 호조를 보였지만 그중 건설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2.9%), 운송장비(7.8%) 등에서 늘면서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선행지표 성격의 국내기계수주도 1.2% 늘었다. 이에 반해,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4.9%나 급감했다. 토목(1.8%)은 증가했지만 건축(-6.9%)에서 공사 실적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 한 해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이 산업을 견인하는 흐름이었다"며 "서비스업 생산도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에 비해 소매판매나 건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좋지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에 건설 수주가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건설기성으로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허리띠 졸라매는 가계... 신용대출 상환 증가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감소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강화로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대출자들이 연말·연초 상여금으로 고금리 신용대출부터 갚은 영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 6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734조 1350억 원)과 비교해 4762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첫 감소세다.

가계대출은 개인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2조 822억원으로 한 달 전(103조 6032억원)과 비교해 1조 595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4860억 원 감소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상여금을 받아 대출을 갚은 사람이 늘면서 감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다.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9조 9771억원으로 전달(578조 4635억 원)과 비교해 1조 5136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증가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신용대출의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서민들의 자금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민들의 경우 급전 필요시 주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데 문턱이 높아지면 2금융권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만큼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대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경쟁을 통해 가계대출 문턱이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서민 자금 공급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방 대출 증가 속도에는 예의를 두고, 3년간 대출을 줄였던 2금융권 가계대출을 늘리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서민 자금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사별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대형마트, 소비위축 직격... '가격·특화' 승부수

유통업 중 가장 큰 소비 감소 폭 기록  
초저가 행사 등 경쟁력 확보 '구슬땀'

대형마트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유통업 중 가장 큰 소비 감소 폭을 기록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더불어 탄핵 정국, e커머스의 신선식품 시장 확장 등이 맞물리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다. 4분기 소매판매를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백화점이 -3.0%p, 슈퍼마켓·잡화점이 -4.3%p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는 -5.6%p로 면세점을 제외한 유통업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하락세의 원인으로 고물가와 고환율에 더해 탄핵 정국까지 악재가 겹친 것을 지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탄핵 정국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이상 기후로 식료품 물가가 상승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e커머스 업체들의 신선식품 배송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형마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쿠팡은 지난해 산지 직송 서비스를 도입, 신선식품 및 농산물 배송을 다각화하며 신선식품 시장을 공략을 확대해 나갔다. SSG닷컴과 마켓컬리 등도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며 경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응해 대형마트들은 기존 매장을 특화 전문 매장으로 개편하고, 초저가 가격 경쟁을 펼치는 등 반등을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서울 강동구에 그로서리 특화매장인 천호점을 6년 만에 새롭게 개점했다. 이마트 역시 지난해 12월, 3년 만에 그로서리 식품 전문매장 '이마트 푸드마켓 수성점'을 오픈했다. 해당 매장은 신선식품을 강화하고 일반 할인점 대비 20~50%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한다.

홈플러스 또한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인천 간석점을 새단장해 재오픈했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는 '세상 모든 맛이 살아 있다'는 콘셉트 아래 기존 메가 푸드 마켓에 생동감을 더하는 현장 콘텐트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식료품 중심의 초저가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물가 안정 캠페인 '더 핫'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AI를 활용해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 역시 이달 27일까지 '가격과격 선언'과 '가격역주행'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95종의 초저가 행사 상품을 선보인다.

황운기 이마트 상품본부장은 "명절 직후 '가격과격 선언'과 '가격역주행' 행사를 동시에 진행해 장보기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며 "올해 이마트는 더욱 경쟁력 있는 가격과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오프라인 쇼핑의 즐거움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전국 4년제 대학 3곳 중 1곳 '등록금 인상'

15년간 이어져 온 동결기조 무너져

전국 4년제 대학 3곳 중 1곳 가량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논의 중인 대학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여년 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면서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 재정 구조를 바꾸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일반 4년제 대학교와 교육대학 등 총 199곳 중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총 57곳이다. 대학 29%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셈이다.

특히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인상을 확정하면서 등록금 인상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올해는 두 배가 넘는 대학들이 이미 인상을 결정했다.

교육 당국은 여전히 등록금을 동결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올해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늦어도 다음주까지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면서 등록

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비 정부 재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1%)에 훨씬 못미친다.

허수경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조직사무국장은 "대학에 돈이 없다면 등록금을 인상할 게 아니라 사립대의 근본적인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가 대학 재정에 더 투자해야 한다"라며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해 온 재정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라고 촉구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다. 고등교육특별회계는 대학 재정 위기를 고려해 지난 2023년부터 3년 한시로 유·초·중·고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한 것으로 올해 말 법정 시한이 끝난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전북대 총장)은 "지난 2023년 신설된 대학 재정에 큰 역할을 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연장시키는 게 (대교협 총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 “대형 SUV·픽업트럭까지”... 신형 전기차 공세로 위기 돌파

## 글로벌 후 업계, 라인업 대거 공개

현대차, 첫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볼보, ‘EX30’ 최대 333만원 인하 기아, ‘EV4·EV5’ 세단·SUV 정조준 한국GM, ‘이퀴녹스 EV’ 출시 준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설 연휴 이후 신형 전기차를 잇따라 선보인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충전망과 안전성 문제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 다양한 가격과 안전성을 갖춘 신차의 출시로 분위기가 반전에 나선다.

3월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이날 첫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 아이오닉9은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플래그십 모델로, E-GMP 기반 동급 최대 휠베이스를 통해 실내 공간을 극대화했으며 110.3kWh 배터리 탑재로 전 모델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00km 이상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전기차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오닉 9의 판매 가격은 7인승 ▲의



현대차 아이오닉 9.

스클루시브 6715만원 ▲프레스티지 7315만원 ▲캘리그래피 7792만원이며, 6인승 ▲익스클루시브 6903만원 ▲프레스티지 7464만원 ▲캘리그래피 7941만원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적용 시 실제 구매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인승 기본 트림 기준 6000만원 초 중반대부터 아이오닉 9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볼보자동차코리아도 한국 시장의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차세대 프리미엄 순수 전기 SUV, 볼보 EX30의 판매가

를 최대 333만원까지 인하하고, 2월 중 본격적인 출고에 나선다.

EX30은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플래그십 모델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프리미엄 전기 SUV다. 특히 일부 국가를 시작으로 출고를 시작한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약 10만대(9만8065)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으며, 유럽 시장에서만 7만8032대를 판매하



볼보 EX30.

며 단숨에 프리미엄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라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내에는 272마력의 모터 출력과 출발부터 시속 100km까지 불과 5.3초만에 도달 가능한 후륜 기반 싱글 모터의 스텐디드 레인지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실내·외 구성 및 일부 편의사양에 따라 코어(Core)와 울트라(Ultra)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새로운 운전자 경고 시스템을 추가해 볼보의 첨단 안전 기술을 모두 적용한 ‘안전 공간 기술’, 간단한 3D 인터페이스 화면 조작으로

주차할 수 있는 차세대 ‘파크 파일럿 어시스트’ 등을 적용하고도 전 세계 최저가에 국내 고객들이 차세대 프리미엄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식 판매가를 최대 333만원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EX30 코어 트림은 4755만원(기존 4945만원/▼190만원), 울트라 트림은 5183만원(기존 5516만원/▼333만원)으로 책정됐다. 국고 및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4000만원 초반대에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아는 상반기부터 준중형 전기 세단 ‘EV4’,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EV5’ 등 EV 시리즈를 잇따라 출시할 전망이다. EV4는 기아의 두 번째 대중형 전기차로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KG모빌리티는 전기 픽업트럭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KG모빌리티는 픽업 통합 브랜드 ‘무쏘’를 출범하고 첫 전기 픽업 차명을 ‘무쏘EV’로 확정했다. 무쏘EV는 올해 1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국GM은 쉐보레 이퀴녹스 EV를 출시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진정되던 원·달러 환율, 트럼프 한 방에 ‘1470원’ 넘겼다

## 美 관세 공세에 원화 가치 급락 美,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추가 관세 국제 외환시장 달러 강세... 원·달러 급등 보호무역 강화에 한국 경제 불안 가중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원화 가치 급락)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조치를 선언한 데 이어 해당 국가들도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맞불을 놓으면서, 시장에서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영향이다.

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52.7원)보다 14.5원 상승한 1467.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지난달 24일 기록했던 연중 최저치인 1431.3원과 비교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는 35.9원이나 높은 수준으로, 환율은 이날 한 때 1470원을 넘겼다.

이번 환율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 기인한 ‘관세 전쟁’이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는 10%포인트(p)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의회 동의 없이도 유효하며, 그 효력은 오는 4일부터 발생한다.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상응하는 반격(反制) 조치로 대응해 권익을 수호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55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 자국민에

게는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또한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3일(현지시간)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개하겠다”라고 예고했다.

국제적인 ‘관세 전쟁’이 가시화하면서, 달러 가치는 빠르게 치솟았다. 통화 대비 달러 가치 지표인 달러인덱스(DXY)는 3일 장중 한때 치솟아 110을 목전에 뒀다. 달러인덱스가 110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0월이 마지막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국내에서도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국 가운데 무역 규모가 두 번

째로 많고, 흑자 규모도 560억달러에 달해 주요 무역국 가운데 가장 크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부터 각종 산업체와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고, 일자리를 발생시키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철강,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반도체는 대(對) 미국 수출 품목 가운데 약 20%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관세 조치를 비롯한 트럼프의 대대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 가운데 83%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조치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제성장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인 1.8%보다 낮은 1.6%로 내다봤다. /양승진 기자 asj1231@

## AI·로봇·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강화

### >> 1면 ‘사법리스크 축소 폰...’서 계속

### 대형 투자·M&A로 성장 동력 확보

그간 이 회장은 재판 일정으로 인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았다.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데도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서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었기 때문.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32조원에 그치면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성장 정체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번 무죄 판결로 경영 쇄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뉴삼성’ 비전을 구체화하고 위기극복 방안에 주

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 향후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M&A와 첨단 R&D사업 발굴 등 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이 회장은 미래 먹거리인인 ▲AI ▲로봇 ▲바이오 ▲전장사업 등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업체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하고 대표이사 직속 ‘미래로봇추진단’도 만들며 본격적인 로봇 사업 추진을 알렸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그룹 컨

트롤타워 부활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이 회장은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비서실, 미래전략실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해체시켰다. 현재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이 회장의 결정에 따라 컨트롤타워의 재건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최근 반도체 실적 부진 등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준감위 연구 보고서 발간사에서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대왕고래 이어 ‘마귀상어’ 유망구조 발견

### 美액트지오 석유공사 용역보고서

동해 심해에 51억배럴 규모로 추정되는 석유·가스 유망구조가 추가로 발견됐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한국 석유공사가 아직 검증 절차를 시작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 심해 기술 평가업체 액트지오(ACT-Geo)에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수행된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가 작년 12월 제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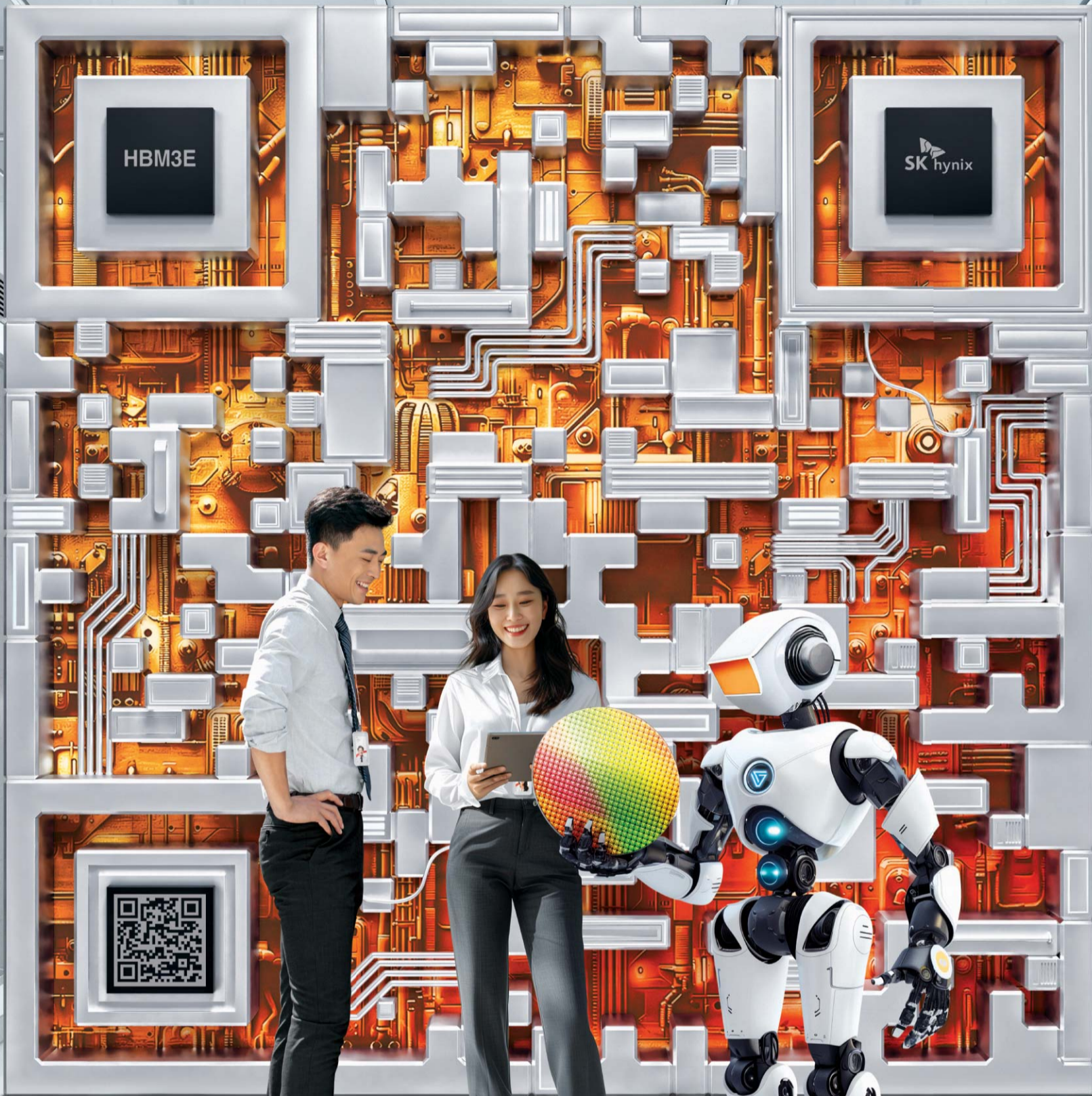
액트지오는 지난해 6월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7개 유망구조(대왕고래)에 대한 물리 탐사 분석을 진행했던 업체다. 이

에 석유공사는 작년 12월 1차 탐사시추 작업을 시작해 해저 2km 부근 시료 채취 작업을 마무리하고, 곧 시료 분석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유망구조는 대왕고래보다 많은 14개로, 탐사 성공률은 대왕고래 구조와 비슷한 유망구조 당 20% 수준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망구조에서는 최소 7000만톤~최대 4억7000만톤의 가스, 최소 1억4000만 배럴~최대 13억3000만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다. 14개 유망구조 중 탐사자 원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 유망구조(마귀상어-Goblin Shark)에는 최대 12억9000만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평가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변론 오는 10일 재개

선고 2시간 앞두고 돌연 재개 결정  
10일 변론기일에 사유 밝힐 예정  
최 대행 변론재개 요청 고려된 듯  
한덕수 헌법소원도 선고기일 연기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헌재 '9인체제' 완성 여부도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우원식의 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헌법

소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돌연 변론기일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변론을 재

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이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했다.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28일 재판관 3인

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했다. 임명 보류의 이유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우원식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당시 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권영세·권성동·나경원, 서울구치소 찾아尹 면회

나경원,尹 옥중 메시지 전달  
일각선 '옥중정치' 비판 목소리도  
이준석 "尹, 사면 요구했음"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회했다. (왼쪽부터)사진은 국회에서 서울구치소로 출발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면회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나경원 의원.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구치소에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찾아 면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졸탄해, 예산 삭감,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었다.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런 조치(비상계엄 선포)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졸탄해, 예산 삭감, 감사원장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 일당 독재로 진행되는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 자리에서 책임감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란 마음으로 조치했다고 한다"며 "당에 대한 당부는,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고, 현재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관련해 나라 걱정을 많이 했다"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면회에서 국회 상황, 헌재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재판관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

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 의원은 "대통령께서 현직이고 정치인이니 당연히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까"라며 "이를 옥중정치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접견 후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고 지금은 직무 중일 뿐"이라며 "야당의 어떤 의원이 왜 구치소까지 찾아가냐고 그러는데, 구치소에 집어넣었으니 구치소로 찾아가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일반적인 이야기로 당이 분열되지 말고, 우파 내에서도 2030 청년들이나 다른 세대 등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분들을 어울려서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옥중에 있는 윤 대통령을 만나서 열 1·2위가 만나고 온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았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오늘(3일)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과거에 발목 잡히는 비대위보다는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하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든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면회에서 자신의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사실, 별로 가서 할 말도 없을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재판 준비하느라 바쁠 거고, 난났을 때 숙제만 잔뜩 안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젊은 세대' 뭐 이러면서 메시지를 내고, '나중에 선거 꼭 이겨서 나 사면 좀 시켜줘'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할 것"이라며 "(면회하러 가서) 숙제만 안고 들어오는 격"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최 대행 "美 고율관세 영향 최소화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수출기업 5개사와 오찬간담회  
수출금융 360兆 공급 등 예정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조 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군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적극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출 모멘트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엘앤에프·케이조선·동진세미캠·대모엔지니어링·코디아산업 등 5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서예진 기자

## 李 "국정협의체 가동해 추경논의 시작하자"

"그동안 輿반대로 실무협의 안 돼  
신속한 추경편성에 적극 협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잘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제둔화가 우려되니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국정협의체에 복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탈퇴했느냐"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또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협의체) 실무협회가 자신들의 추경 거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왜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며 "거짓말이 전매특허인 지 특징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소매금융, 동산담보대출... 저축은행, 새 먹거리 발굴 분주

79개사 여·수신 규모 박스권  
2년여간 다운사이징 안정권 평가  
오토론·미트론 줄줄이 중단  
부동산 PF 위축 속 리테일 주목

저축은행이 새 먹거리 찾기에 분주하다. 여수신 규모가 고착화된 가운데 신규 사업 구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취급을 중단한 데다 리테일(소매금융) 취급 환경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여신잔액은 97조1075억원이다. 지난해 7월(96조9415억원) 이후 4개월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저축은행 여신잔액은 지난 2022년 11월을 시작으로 21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신잔액 또한 100조원대 박스권에 진입했다. 지난해 11월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은 103조3649억원을 나타냈다. 같은해 8월(100조9568억원)을 기점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지난 2023년 1분기 이후 여·수신 규모를 줄이는 등 소극적인 영업행보를 지



Chat GPT가 생성한 '저축은행 직원이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모습' 이미지.

속했다. 2년여간 이뤄진 '다운사이징'이 안정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저축은행 영업행보가 안정화한 만큼 차기 과제는 새 먹거리 발굴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면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설정 뿐 아니라 유지·관리가 까다롭다. 인력 효율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취급이 부담스럽단 반응이 나온다.

과거 저축은행이 취급하던 대표적인 동산담보대출 상품은 중고차오토론이다. 중고차구매를 지원할 뿐 아니라 차량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내줬다.

그러나 이달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 중 오토론을 취급하는 곳은 5곳(상상인·스마트·키움에스·페퍼·동원저축은행)에 그친다.

감가상각 뿐 아니라 사고, 파손 등의 이유로 담보물의 가치가 훼손될 경우 손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육류담보대출(미트론)' 또한 취급이 전무한 상황이다. 미트론이란 냉동창고에 보관한 육류를 담보로 자금을 내주는 대출상품이다. 과거 2금융권을 중심으로 수 조원 규모의 미트론을 일으키면서 '호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일부 육류유통업자와 냉동창고업자가 중복 대출을 받는 등 대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인력 효율화를 꾀하는 과정에 담보 가치를 평가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 임직원은 9602명이다. 2023년 1분기를 시작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서는 일부 동산담보대출로 소규모 손해가 발생해도 리테일로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신규 상품 개발과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영업 행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리테일 확대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54%로 직전 분기 대비 0.26%포인트(p)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13.03%)의 3분의 1수준이다. 아울러 고금리 장기화에 부동산PF 경쟁매도 난항을 겪고 있다.

장기적인 흐름에선 동산담보대출 취급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능력을 확보하지는 취지다. PF와 리테일만 바라보면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이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며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보험 브리핑

### 삼성생명

####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이달부터 고객 문자 발송

삼성생명이 고객의 숨은 보장자산을 찾아준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소중한 보장가치를 지키고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회사가 먼저 안내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생명은 2월부터 숨은 보험금이 있는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담당 컨설턴트와 함께 고객이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금액이 확정됐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소멸된 계약의 휴면보험금과 신청하지 않은 연금이 해당된다.

### 흥국생명

#### 효력 상실 보험 간편확인 모바일 부활 청약 서비스

흥국생명은 효력이 상실된 보험의 부활 여부를 하루 만에 확인하고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부활 청약 서비스는 가입자가 콜센터나 설계를 통해 부활 의사를 전달하면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URL)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한 부활 청약서를 제출해야만 부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흥국생명은 지난해 도입한 '선심사 시스템'을 통해 부활 가능 여부를 더욱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화손보

#### 장기요양부터 재활까지 치매간병보험 무배당

한화손해보험은 3일 고객의 장기요양부터 치매와 재활치료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신상품 '한화 치매간병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고객 수요를 반영해 재가 및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보장받는 장기요양급여금 II 담보를 신설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재가급여 항목을 개별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중증 치매 위주 보장이었던 기존 간병보험과 달리 경증 치매 단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장을 구성했다. ▲알츠하이머치매 진단후특정우울증진단비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진단비를 신설해 경증 치매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울증과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 보장한다.

## 올해 공사비 더 오른다... 건설사 재무건전성 어찌나

작년 12월 건설공사비지수 130.18  
분양가 폭등에 실수요자도 직격탄

건설공사비 상승세가 5년째 이어지면서 건설사와 실수요자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급등한 환율과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올해도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8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작성한 가공통계로 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다. 2020년을 100으로 한다.

지수는 2020년 말 102.04에서 2021년 말 117.37, 2022년 말 125.33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2023년 말 128.78, 2024년 말 130.18로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작년 2월 130.05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30을 웃돌았고, 지난해 9월에는 130.3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가 부담에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됐다.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여파에 인플레이션 등으로 2023년부터 실적 발표 기간마다 추

가 비용 반영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23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4분기 영업적자 1조7000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베세호 iM증권 연구원은 "2021년 이후 상승한 공사비의 영향이 건설사들의 실적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실적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최소 2025년 상반기까지도 실적 개선세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급등한 공사비는 건설사 뿐만 아니

라 실수요자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분양가는 치솟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부담금을 이유로 진행이 늦춰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2063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1918만원)을 웃돈다. 분양가가 매매가 평균보다 비싸진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3.3㎡당 평균 매매가격 4300만원, 분양가 4820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하나금융, MSCI ESG평가 최고등급 획득

3년 만에 'AAA' 등급으로 2단계 ↑  
다양한 분야 글로벌 최상위 평가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에서 2024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A등급을 획득한 지 불과 3년 만에 최고 등급인 AAA 등급으로 2단계나 상향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나금융은 이번 평가에서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 ▲반부패 및 윤리경영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어린이·외국인 유학생·시니어 손님 등을 위한 금융 교육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 취약계층과의 상생 금융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MSCI AAA 등급 달성은 하나금융그룹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진정성 있는 ESG 경영 활동을 일관성 있게 실천해 온 노력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입증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ESG 선도기업으로서 우리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우리은행, 지난해 민생금융 2801억 지원

당초 2758억 보다 43억 초과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에 집중

우리은행이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2024년 한 해 동안 2801억원의 민생금융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우리은행은 당초 2758억원 규모로 민생금융지원을 계획했으나 43억원 초과된 2801억원을 지원하며 상생금융에 앞장섰다.

공동프로그램 1835억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만명에 대한 이자 캐시백에 집중됐다.

또한 자율프로그램 966억원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임산부 보험 조회보험료 및 출산축하금 지원 ▲서민금융대출 성실 상환자 캐시백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 중심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했다.

특히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태아보험을 포함한 임산부보험 무료가입 ▲우리은행 거래고객의 신생아 자녀 출생축하금 5만원 지원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10만명 대상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했다.

우리은행은 올해도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참여로 ▲맞춤형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김주형 기자 gh471@



# LG전자, 사이언스파크 연구동 증설... R&D 인력 1만명 집결

글로벌 R&D 컨트롤타워 역할 안전체험관 마련 등 근무환경 개선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가속

LG전자가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4개 연구동의 증설을 완료했다. LG사이언스파크내 LG전자 연구동은 10개로 늘어났으며, 국내 연구개발(R&D) 인력 약 1만명이 집결해 시너지를 내는 글로벌 R&D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3일 LG전자에 따르면 LG사이언스파크 내 LG전자 연구동의 전체 연면적은 12만5000평, 부지 기준으로는 2만1000평으로 서울 소재 단일 회사 R&D 센터로 최대 규모다.

지난 설 연휴를 시작으로 서초, 양재, 가산 R&D캠퍼스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중 2000여명이 LG사이언스파크 신설 연구동으로 순차 입주를 시작



LG사이언스파크 내 연구동 전경. (원형사진) 구광모 LG그룹 회장

/LG전자

했다.

선행기술 R&D를 주도하는 최고기술책임자(CTO) 부문 및 4개 사업본부 소속 R&D 인력 대부분이 LG사이언스파크에 모여 근무한다.

LG사이언스파크는 총 23개 해외 연구소의 현지 적합형 제품 개발 및 본사 주도 R&D 과제 수행 기능을 이끄는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기존 LG사이언스파크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1000여명이 신축 연구동으로 이동해 새로운 연구동에서 근무한다.

이번 증설로 LG전자는 연구원들이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신축 연구동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육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00명 규모 어린이집도 증설했다. 기존 운영중인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면 LG사이언스파크내 직장어린이집 규모는 총 460여명 규모로 늘어났다.

화재대피와 보안경 성능, 안전화 충격, 화학물질 반응 등 총 18개 안전 체험 콘텐츠를 운영하는 임직원 안전체험관도 마련했다.

실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연구원들이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LG전자는 고객의 공간과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을 지향점으로 두고 개별 제품을 넘어 고객에게 보다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체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증설로 LG사이언스파크 전체 연구동은 기존 22개에서 26개로 늘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여㎡(약 5만4000평) 부지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 융복합 연구단지다.

LG전자를 포함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계열사 R&D 조직과 협력사, 스타트업 등을 포함해 총 2만5000여명이 근무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조선업계, 고부가선박 중심 수주 확대... 연간 실적전망 '맑음'

친환경 분야 선도... 분기 실적 견조 일각선 수주 선종 다각화 필요 지적

국내 조선업계가 LNG운반선을 비롯한 친환경 선박을 앞세워 올해도 탄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국의 거센 추격과 LNG선 발주 감소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가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 수주 전략을 펼치며 4분기에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소형 화물선 등 보통 선박 부문에서는 중국이 높은 점유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초대형 선박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부문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따른다.

그러나 국내 조선업계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면서도 단순 수주량에서는 중국에 크게 밀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글로벌 선박 수주량 기준 상위 10개 조선소 중 7개를 중국이 차지했으며 1~4위를 독식했다. 한국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HD현대삼호조선이 각각 5~7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량만으로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LNG선의 발주 감소를 대비해 수주 선종 다각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27년 이후 LNG선 신조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선료 하락과 선박량 과잉으로 인해 선사들의 신조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저가물량 공세에만 의존했던

중국 업체들이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에 뛰어들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영국선박 가치평가기관 배슬스밸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7%였던 한국의 LNG선 수주 점유율은 지난해 중국이 41척을 수주하며 점유율 38%를 기록한 영향으로 한국의 점유율은 62%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중국이 친환경 선박분야로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조선소들이 지난해 1~3분기 글로벌 친환경 선박 오더의 70%를 수주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같

은 기간 한국 수주량은 18%에 그쳤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범으로 인한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며 협업 의지를 내비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동시에 각국을 향한 관세 확대를 강조한 무역정책이 글로벌 교역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견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계가 여전히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앞서고 있으나 중국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도 중국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수주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완성차업계, 1월 판매량 감소... 르노코리아 '나홀로 상승세'

설 연휴로 근무일수 감소... 판매 영향

국내 완성차 업계가 설 연휴에 따른 근무 일수 감소로 지난달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르노코리아는 신차 그랑 콜레오스 효과로 판매 상승세를 이어갔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1월 글로벌 시장에서 31만399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국내 4만6054대, 해외 26만4345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5%, 1.4% 줄었다.

국내 판매는 세단의 경우 그랜저 5711대, 아반떼 5463대, 쏘나타 3620대 등으로 총 1만4806대 판매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레저용 차량(RV)은 싼타페 4819대, 투싼 3636대, 코나 2141대, 캐스퍼 926대 등 1만4836대를 팔았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2730대, GV80 2692대, GV70 2739대 등 총 8824대를 팔았다.

기아는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총

23만9571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국내 3만8403대, 해외 20만993대다. 국내는 1년 전보다 13.9% 감소했고, 수출은 0.1% 소폭 증가했다. 특수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4.9% 감소한 175대로 집계됐다. 지난달 글로벌 최대 판매차종은 스포티지로 4만3473대다. 이어 셀토스 2만2198대, 쏘렌토 2만1421대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 판매차종은 스포티지 3만6926대, K3(K4 포함) 1만8663대, 셀토스 1만7856대 등으로 집계됐다.

KG모빌리티는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3.0% 감소한 7980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는 23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9%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수출이 5.0% 늘어난 5680대를 기록했다. 차종별로는 토레스(1961대), 코란도(1420대), 렉스턴스포츠(1272대) 순으로 많이 팔렸다.

한국GM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총 3만161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

비 26.8%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1229대, 해외 3만389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5%, 24.6% 감소했다. 한국GM의 글로벌 판매는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2만1820대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르노코리아는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3817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해당 기간 부산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도 그랑 콜레오스의 인기로 힘입어 판매 성장을 이어갔다.

르노코리아의 지난달 내수 판매는 2601대, 수출은 1213대로 나타났다.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8.1%, 수출은 같은 기간 438.1%씩 늘었다. 내수 판매 중 그랑 콜레오스 판매는 2040대로 실적을 견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 상황과 설 연휴에 따른 근무일수 감소로 국내 판매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양성운 기자 ysw@

## 김동명 사장 "리벨런싱·핀더맨탈 활동 집중"

(LG에너지솔루션)

"호시우보 자세로 슈퍼사이클 지배"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 사장(사진)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임직원들에게 위기 속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축적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3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김 사장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강자의 시간',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사장은 "북미의 여러 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저는 지금을 '강자의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위기일 때 진정한 실력이 드러난다. 미래 슈퍼사이클 도래시, 결국 실력을 갖춘 기업이 이를 지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호시우보'의 자세로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되 제품 및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추는 활동을 정말 우직하고 묵묵히 실행해 나갈

시점"이라며 "이런 자세로 준비하면 다가올 슈퍼사이클의 지배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이미 강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더욱 차별화된 경쟁력을 축적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무척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회사는 투자 유연성을 높이고, 라인 전환 및 효율화 등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한적이지만 올해 매출도 5~10%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리벨런싱'과 '핀더맨탈' 활동에 더욱 집중해 수익성에서도 턴어라운드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 “오픈AI도 흔들렸다”... AI 업계, ‘폐쇄형 독점’ 무너지나

샘 올트먼 “오픈소스 방향 전환 필요”  
초저비용·고성능, 게임체인저 부상  
MS·구글·메타, ‘AI 전략’ 재정비

오픈AI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전략’ 전환 가능성을 공식 시사하면서, 그동안 폐쇄형 AI 모델 개발을 고수해 온 AI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레드 ‘뒤편지 물어봐’(AMA) 질의에서 “우리는 (오픈소스와 관련해) 역사의 잘못된 편에서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다른 형태의 오픈소스 전략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케빈 웨일 오픈AI 최고제품책임자(CPO)도 “구형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오픈AI가 기존 폐쇄형 전략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켰다.

실제로 오픈AI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추론 AI 모델 ‘o3’의 경량화 버전인 ‘o3 미니’를 무료로 공개했다.

o3 미니는 수학·과학·코딩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기존 모델인 ‘o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K-Startups meet OpenAI 행사에서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스타트업과 글로벌 AI 기업간 협업 등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보다 더 빠른 응답 속도와 높은 가성비를 자랑한다. 오픈AI에 따르면 ‘o3 미니’는 입력 토큰 100만개당 0.55달러, 출력 토큰 100만개당 4.40달러라는 낮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추론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딥시크는 최근 초저비용·고성능 AI 모델 ‘R1’을 공개하며 AI 업계에 충격을 줬다. 특히 저비용으로 GPT-4 수준의 성

능을 구현해 AI 모델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실제로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 ‘R1’을 두고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MS)·애플 등 미국 빅테크 경영진들이 ‘저비용 고효율’ 혁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대표 벤처투자자인 마크 앤드리슨은 “딥시크 R1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랍고 인상적인 혁신 중 하나”라며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극찬했다.

스푸트니크 모멘트는 기술우위를 점하던 국가가 후발 주자의 예상치 못한 도전에 충격을 받는 순간으로, 1957년 옛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데서 유래했다.

다만, 샘 올트먼 CEO는 지난해 온라인 간담회에서 “내년(2025년) 1월 말 o3 미니를 먼저 출시하고 곧이어 o3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이번 공개는 예정된 일정이었던 점에서 딥시크의 등장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AI 업계에서는 o3 미니 출시가 ‘딥시크 쇼크’와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오픈AI가 고급 AI 모델의 접근성을 확대하면서도 딥시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오픈AI와 구글 등은 폐쇄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해왔다.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독점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딥시크와 메타 등 후발 주자들이 오픈소스 모델을 내세워 단기간에 AI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AI 산업의 미래는 오픈소스와 폐쇄형 모델 간 경쟁 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오픈소스 모델의 효율성이 입증되면, 후발 주자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반면, 폐쇄형 모델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면 AI 시장은 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가 나온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회의실 예약도 척척”... SKT, ‘에이닷 비즈’ 도입 가속화

사내 AI CBT 도입... 300명 대상  
일정 관리 등 ‘업무 자동화’ 지원  
개선 과정 거쳐 상반기 내 상용화

SK텔레콤이 자사 AI(인공지능) 에이전트인 ‘에이닷 비즈(A. Biz)’를 실제 업무에 본격 도입했다.

SK텔레콤은 SK C&C와 공동 개발 중인 업무용 AI 에이전트 에이닷 비즈의 사내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SK텔레콤과 SK C&C 구성원 300여명이다.

에이닷 비즈는 SK의 기업대상(B2B) AI 핵심 솔루션이다. AI 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돕는다.

SK텔레콤은 이번 CBT를 통해 일상적 공통 업무를 대신하는 에이닷 비즈,



SKT 구성원이 에이닷 비즈의 앱/웹 화면을 보고 업무를 하는 모습. /SKT

그리고 전문 업무에 특화된 에이닷 비즈 ‘프로페셔널’ 등 두 가지 버전의 AI 에이전트 기능을 테스트하며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준비할 예정이다.

우선 에이닷 비즈는 사내·외 정보 검색과 회의록 작성, 일정관리 및 조율, 회의실 예약, IT 헬프데스크 등 일상 업무에서 자주 쓰는 기능을 제공한다.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업무 내용을 에이닷 비즈 채팅창에 입력하면 답변 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업무 실행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내일 오전 사용 가능한 회의실을 확인해줘’라고 명령할 경우, 구성원의 현재 좌석·일정 등을 고려해 복수의 회의실을 조회하고 예약까지 해주는 식이다. 회의 초대와 참석자 일정 반영도 채팅만으로 해결된다.

에이닷 비즈가 일상적이고 범용적 업무를 돕는다면, 에이닷 비즈 프로페셔널은 법무·세무·PR 등 전문 업무 영역에 특화된 맞춤형 업무 기능을 지원한다.

특정 이슈에 대한 기존 자료를 검토해 법률 자문을 제공(법무)하거나, 회사와 관련한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정

리(PR)하는 등 다양한 전문적 기능을 통해 구성원이 AI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도록 한다.

에이닷 비즈는 SK텔레콤의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엑스(A. X)’, 오픈 AI의 챗GPT 등 다양한 언어 모델을 활용해 성능을 고도화해 갈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품질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 환경(UI)·경험(UX) 전문가 중심의 TF(테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이번 비공개 베타 과정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구성원 피드백을 반영해 품질 이슈 등을 개선해나간다.

SK텔레콤은 이같은 개선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에이닷 비즈 상용화 버전을 정식 출시하고 21개 SK 주요 멤버사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카카오페이지 ‘초신작 프로젝트’ 공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3일 카카오페이지 2월 ‘초신작 프로젝트’ 라인업을 공개했다. 카카오페이지 ‘초신작 프로젝트’는 매달 엄선된 신작 웹소설 2편을 이용자 열람 이벤트와 함께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이달 초신작 프로젝트 작품은 이린비 작가의 ‘죽국의 왕자를 기사로 들이면’과 은밀히 작가의 ‘전설급 네크로맨서의 2회차’ 2편으로 카카오페이지 론칭 후 각각 로맨스 판타지와 판타지 장르에서 1위를 기록했던 흥행작 집필 작가들이다.

카카오페이지는 이번 2월 ‘초신작’ 작품 론칭 기념으로 두 작품을 감상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만원의 캐시 뽑기권을 제공하는 ‘초신작 아카이빙’ 이벤트를 전개한다.

/김서현 기자

## 아임웹

### 온라인 교육 확대개편 “회원 누구나 무료 수강”

웹사이트 구축 플랫폼 ‘아임웹’이 초보 사업자부터 성장 기업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 개편하며 고객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맞춤형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커리큘럼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존 사전 신청제에서 벗어나 2월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매주 평일 오후 5시에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아임웹 회원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탭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 “모르는 문제 사진 찍으면 AI가 5초만에 답”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원주 신임대표 내정

KT, ‘판다’ 서비스 2종 선보여

KT는 전 세계 9800만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 ‘판다’ 구독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판다’는 KT가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국내 벤처기업 매스프레소의 대표 서비스다.

판다는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모르는 문제를 사진으로 촬영하면 AI가 5초 안에 풀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이다. 단계별

풀이와 힌트 제공, 개별 학생 맞춤형 설명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지원하며, AI가 제시하는 추가 질문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 ‘1타 강사’와 명문대 대학생 등 검증된 교육자들이 1200원 이상의 주요 문제집과 모의고사에 대한 상세한 동영상 풀이를 제공한다.

KT는 ▲판다 프리미엄(월 1만8500원) ▲판다 프리미엄 라이트(월 1만1000원) 2종을 구독 부가서비스로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디케이테크인 대표이사 겸직 예정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3일 카카오 계열사 IT 솔루션 개발사 디케이테크인 이원주 대표(사진)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 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 대표이사를 겸직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이원주 내정자는 2008년 카카오에 합류한 후 2015년 디케이테크인 대표로 선임됐다. B2B IT 및 AI 인프라 분야에서 폭



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으며, 디케이테크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해왔다.

이 내정자가 이끄는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1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자회사 ‘케이이피’를 흡수합병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이 내정자는 ‘카카오워크’, ‘카카오 i’ 등 케이이피의 6개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김서현 기자 seoh@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 후카후카스튜디오 ]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 불성실공시 상장사 급증... “경기부진 지속에 더 늘어날 것”

지난달 18곳 지정... 전년비 5곳 ↑ 지정 시 주가 하락, 신뢰도 악영향 경기침체 때 공시관리 부실 경향 낮은 경제성장률에 기업 경영난 겪어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유상증자 철회나 계약 변경 등 주요 사안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사례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상장사가 급증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18곳으로 전년 동기(13곳)보다 5곳 증가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사가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을 번복·변경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부과하는 제



/유투이미지

재 조치다. 주요 유형으로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이 있으며, 특히 유상증자 취소, 단일판매·공급계약 변경, 단기차입금 증가 지연공시 등이 주된 사유로 꼽힌다.

나노브릭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주주총회 소집

결의 ▲유상증자결정 등을 공시했다가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5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이오플로우와 KS인더스트리도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제주맥주는 전환사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

면서 불성실공시법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알멕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이행금액의 50% 이상 변경을 사유로 제재금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단기간 주가 하락은 물론, 장기적으로 증권시장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이오플로우는 지난달 1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후 주가가 약 15% 하락했으며 지난달 16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제주맥주 역시 16%가량 떨어졌다.

올해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들의 공시 관리가 부실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작년에도 2%대 초반의 낮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었고 올해는 성장률이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불

성실공시법인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사유에 따라 벌점 부과 또는 공시 위반 제재금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당해 연도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절차가 장기간 소요돼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성실공시는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워 자금조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성실공시에 대한 규제는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美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도, 최대 수혜국 가능성”

### 현동식 한투운용 상무

이머징마켓서 경제성장 패턴 반복 PER 낮아질 것... 장기투자 유호 소비·인프라섹터 집중 전략 택해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인도가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와 노동력, 성장 잠재력을 모두 갖춘 인도는 제조업과 소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인도 관련 ETF를 출시하며 투자 기회를 확대 중이다.

인도 ETF 운용의 선봉에선 한투운용의 현동식 상무(해외비즈니스본부장)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인도는 최대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인 성장



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상무는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신흥시장)’에서 경제 성장의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중국, 베트남 등이 겪었던 성장 경로를 인도 역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다. 현 상무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자본, 기술,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머징마켓 중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젊고 저렴한 노동력을 갖춘 국가”라며 “한국, 중국, 베트남이 그러했듯 인도 역시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장이 들어서면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며 자동차, 가전, 식품 등의 소비재 시장이 급성장하는 흐름이 반복되기에 이를 중심으로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갈등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 상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체 생산 기지로 인도가 떠올랐다. 다만 1기 때는 인프라가 부족해 충분한 수혜를 받지 못했지만, 최근 10년간 모디 정부가 항만·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제조업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는 공장을 인도로 이전하려 해도 도로와 항구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

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인도의 노동력 비용 차이도 여전히 크다. 중국의 최저임금이 370달러인 반면, 인도는 95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이전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게 현 상무의 설명이다.

현 상무는 최근 인도 증시가 급등하면서 고평가 됐다라는 평에 대해서는 “PER(주가수익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성”이라며 장기 투자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EPS(주당순이익)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PER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는 “인도의 성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PER은 낮아질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현재 엔비디아의 PE

R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기에, 인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10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계획할 경우 ‘오늘의 PER’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한투운용은 인도 시장에서 단순 지수 추종이 아닌 소비와 인프라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 현 상무는 “니프티 50을 추종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는 되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투운용은 ▲인프라 ▲디지털 인디아 등의 테마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도 ETF’ 출시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끝으로 현 상무는 “인도=장기적 성장”이라는 기초 아래 한투운용이 최적의 인도 투자 전략을 제공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조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메리츠증권, 세계 최초 ‘필라덱스’ 도입

뉴욕증권거래소 차세대 호가 서비스를

메리츠증권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차세대 호가 서비스인 ‘필라덱스’(PillarDepth)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필라덱스’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가 여러 아시아 증권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고안해낸 최신 호가 시스템이다. 기존처럼 1개 거래소만의 호가가 아닌, NYSE 산하 5개 거래소(NYSE, ARCA 등)의 호가 데이터를 모두 종합해 각 10개씩의 최적화된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미국 주식시장의 특정 거래소와 호가 서비스 계약을 맺고 고객들에게 실시간 시세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호가 서비스로는 Arca 거래소의 아카북, 나스닥의 토탈뷰 등이 있다. 반면 복수 거래소의 데이터

를 모두 종합한 호가 서비스는 ‘필라덱스’가 유일하다. 뉴욕증권거래소는 ‘필라덱스’를 현존하는 가장 정교하고 종합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여러 거래소의 데이터를 통합 산출하기 때문에, 고객의 거래 희망가에 근접한 호가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설명이다.

이 차세대 호가 시스템은 미국 주식시장의 장 시작 전 동시호가와 장 마감 전 동시호가에 대한 데이터도 빠짐없이 제공한다. 미국 주식시장의 동시호가는 뉴욕증권거래소의 장 마감 전 데이터만 놓고 봐도 일평균 240억달러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유동성이 몰리는 시간대다.

메리츠증권은 아시아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한 프리마켓(장전거래)과 애프터마켓(장후거래)에서도 최신 호가 데이터의 장점이 발휘된다고 설명했

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정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호가가 다양하게 제시되기 어렵지만, 메리츠증권 고객들은 필라덱스의 종합적인 호가 서비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호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NYSE의 Proprietary Data(핵심 자체 데이터)를 총괄하는 앤소니자와츠키는 “이번에 메리츠가 새로운 시세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과 같이 시스템의 정교함을 확대해 나간다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는 “장기적목표는 메리츠증권만의 차별화된 거래 시스템을 갖추고 글로벌한 투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스템과 커뮤니티, 그리고 지난 6일 론칭한 ‘미국국채 LIVE’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결합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디지털 투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삼성운용, 美 AI전력핵심인프라 ‘규모 1위’

개인 순매수 242억 달해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 인공지능(AI)전력핵심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달 31일 개인 순매수가 242억원에 달하며 전체 ETF 중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순자산은 2696억원으로 전력인프라에 투자하는 국내 ETF 7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미국의 전력 생산, 송배전망,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된 전문기업 10곳에 집중 투자하며, 분야별로는 풍력발전(GE Vernova), 원자력(Constellation Energy, Vistra Energy, NuScale Power), 송배전관리(Eaton, Quantia Services),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Arista Networks, Trane Technologies, Vertiv Holdings, Emcor Group) 등이다.



/삼성자산운용

지난해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최근 중국 ‘딥시크’ 영향으로 AI인프라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했지만, 미국의 고질적인 전력생산 및 인프라 부족 상황과 전력 수요 산업의 향후 비약적 발전 흐름을 감안했을 때 장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인식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하락세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원관희 기자



# 역대급 불황에 규제까지... 시멘트 업계, 올해 전망 '더 캄캄'

작년 시멘트 내수 4360만t 불과 전년 5024만t 대비 10%이상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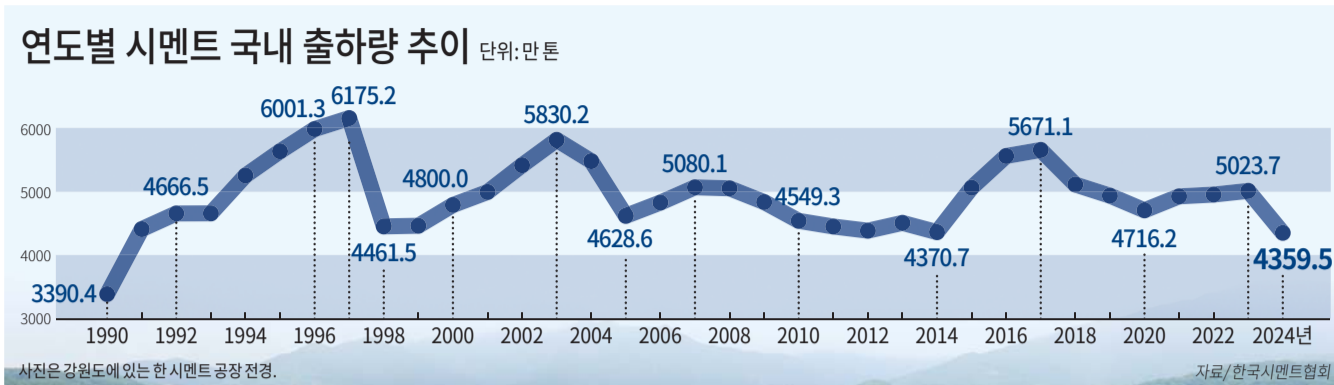
'환경 규제' 친환경 투자 늘리고 SOC 예산 줄어들어 '악재' 겹쳐 재고 쌓이고 시멘트값 하락 우려

올해 시멘트업계의 내수 출하량이 4000만톤(t)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방산업인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침체와 중소건설사 경영난, 국내 경기 침체 등 시멘트 산업 주변을 둘러싼 상황이 악화일로이다. '연간 4000만t 미만'은 내수가 199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3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멘트 내수 출하량은 4359만5000t으로, 전년도의 5023만7000t과 비교해 10% 이상 줄었다.

90년대 이후 시멘트 내수는 96년과 97년 당시 6000만t을 넘어서기도 했다. 출하량이 다소 줄긴 했지만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도 5000만t 이상을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중소건설사들의 위기도 커지는 등 시멘트 주고객인 건설업계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시멘트 수요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이와 함께 환



사진은 강원도에 있는 한 시멘트 공장 전경. 자료/한국시멘트협회

경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시멘트 회사들이 친환경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하는 등 올해 경영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일시멘트 대표로 올해 초 제31대 한국시멘트협회장에 선임된 전근식 회장은 취임사에서 "올해는 전방산업 침체로 시멘트 내수가 지난 90년대 초 이후 35년만에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갈수록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와 제조원가 상승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시멘트 업계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시멘트의 가장 대표적 전방산업인 주택시장은 올해 큰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앞서 내놓은 '2025년 주택시장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준공 물량은 33만2000호로, 지난해의 44만호(추정치)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17~2021년 평균은 52만3000호였다.

올해 예상 착공 물량은 30만호로 지난해의 26만호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2017~2021년 평균(52만1000호)과 비교하면 크게 줄

어든 양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내놓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고 부동산 규제가 여전히 주택시장 호전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전년 대비 3.6% 감소한 25조5000억원으로 책정돼 공공건설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여 건설시장의 물량 부족 현상도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지난해 환경개선 등을 위한 설비투자에 총 6076억원을 투자했다. 관련 투자는

2020년 당시 3429억원에서 4226억(2021년)→4469억(2022년)→5683억원(2023년) 등으로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시멘트사들이 배기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OC)까지 추가로 설치할 경우 투자 비용은 더 증가해 고심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가뜰이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데 투자비만 느는 것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시멘트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유연탄(동북아 5750kcal/kg 기준) 가격이 최고점인 2022년 3월 당시 t당 295달러에서 지난 1월 말 현재 99달러까지 떨어진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원화가치 하락(달러값 상승)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시멘트사들의 시멘트 총 생산능력은 연간 6000만t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 실제 국내 출하량이 4000만t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량을 아무리 줄인다고해도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되면 시멘트값 하락과 경영난 가중 등 역효과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남는 물량을 수출, 값싼 중국산 시멘트와 경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해 시멘트 수출량은 업계 전체적으로 59만8000t에 그쳤다. 이는 고작 내수의 1.4% 수준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진공, 더 나은 미래도약 전환점 삼아야”

강석진 이사장, 창립 46주년 기념사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46주년을 맞아 “더 나은 미래로도 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3일 오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창립 4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중진공의 지난 46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이사장은 “지난 4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더욱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진정



3일 오전 경남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창립 46주년 기념식에서 강석진 이사장(가운데) 등 임직원들이 떡케이크를 전달하고 있다. /중진공

으로 사랑받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은 중진공의 역사와 직원들의 인터뷰를 담은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헌신한 우수 직원들에 대한 표창식과

떡케이크 절단식 등으로 진행했다.

중진공은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향후 주요 과제로 ▲국가적·시대적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기술 혁신 지원 ▲배려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 중소 800여곳에 ‘혁신바우처’ 190억 투입

중기부, 지역성장형바우처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2025년도 2차 공고를 내고 ‘혁신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 800여 개사에 1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혁신바우처 사업은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2차 공고는 5개 혁신바우처 사업 가운데 ‘지역성장형바우처’ 유형의 수요 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 기업과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에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 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17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40억원에서 30억원 확대된 것으로, 지역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레전드50+ 프로젝트 수가 당초 21개에서 37개로 늘었고, 참여기업 수도 500여 개사가 증가한 점을 반영했다.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은 현장평가를 면제받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등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창의성

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상담 및 코칭, 보육공간과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창업트렌드 등을 고려해 로컬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2가지 유형으로 나눠 510명을 선발한다. 예비

창업자의 아이템,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기초단계에서는 사업모델 개발, 법률교육, 지식재산권 등 창업필수교육을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과 연계해 제공한다. 예비 창업자의 필요에 따라 입주 공간을 배정받게 된다.

심화과정에서는 사업화 자금, 맞춤형 특화아카데미와 상담·코칭을 진행하고 피칭대회를 통해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 KCC글라스, 북미 공략 친환경 기술 선보

美 바닥재 전시회 ‘TISE 2025’ 참가

KCC글라스가 미국을 비롯해 북미 지역 추가 공략에 나섰다.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규모 바닥재 전시회인 ‘TISE 2025(The International Surface Event 2025)’에 참가해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

TISE는 매년 6만여명이 방문하는 세

계적 규모의 국제 바닥재 전시회다. 올해는 전 세계 7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공유했다.

올해로 네 번째 참가한 홈씨씨 인테리어나는 이번 전시회에서 친환경 생산 기술과 디자인 역량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특히 KCC글라스의 ‘디지털 프린팅(Digital Printing)’ 기술과 ‘바이오 필릭 디자인(Biophilic Design)’을 접목한 LVT(럭셔리 비닐 타일) 제품이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공무원단기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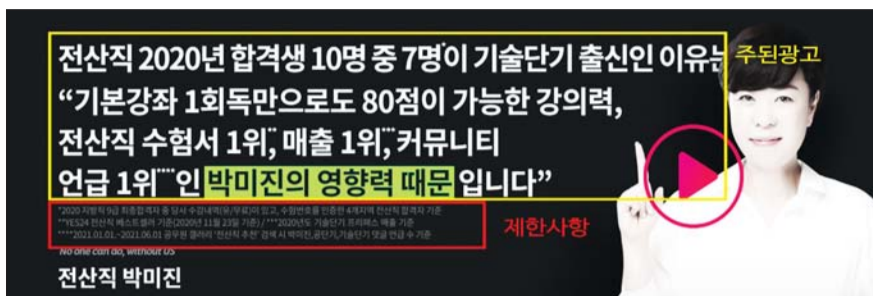
# 공단기 “80% 합격률·수강생 1위”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1.1억 과징금

공정위, 에스티유니타스 시정명령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에 제재 조치  
합격률 1위 홍보했지만 실제와 달라  
소비자 기만 광고... 공표명령도 부과

공무원 시험 대비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가 객관적 근거 없이 공무원시험 합격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공단기의 사회복지직 관련 홈페이지 광고물. /공정위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해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공단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이라는 광고를 게재했으나, 실제로는 최종합격자 중 공단기 유/무료 수강내역이 있고, 수험번호를 인증한 대구지역 사회복지직 합격자 기준으로 실제 합격률은 66.20%였다.

같은 기간 '수험생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을 광고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

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가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했다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공급망 탄소감축 파트너십 선도 모델 발굴

산업부,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사업부,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사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개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복수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그간의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단일 기업이 아닌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해서도 지원하게 된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배터리규정(EUBR) 등과 같이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 규제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도 공급망 기반의 탄소 감축 지원을 절실히 필요

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 수혜를 희망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 대기업 등은 복수의 협력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공급망 컨소시엄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등 탄소감축에 필요한 자금을 컨소시엄당 총사업비의 최대 40% 내에서 1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벗어나 공급망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동 사업을 통해 공급망의 탄소산정·감축 등 우리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 “트럼프 관세 조치, 시나리오별 대응해야”

산업부, 美 관세 인상 영향 점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최근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능 수단을 동원해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본부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미국 신(新)정부의 주요 행정조치 대응을 위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이날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 부과 조치와 그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부내 TF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해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10%),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산업부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미국의 관세 등 정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관련 업계 우려와 건의사항을 청취해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유사 상황에 놓인 주요국 동향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가능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친환경 섬유소재 개발에 352억 투입

산업부, 리사이클 기술개발 착수  
오는 12일 서울서 사업설명회 개최  
참여 희망 기업·기관 27일까지 신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폴리에스터 복합섬유의 F2F(Fiber To Fiber) 리사이클 핵심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나이키와 자라 등 글로벌 섬유 수요 기업들은 2030년부터 리사이클 섬유 등 친환경 섬유를 100% 사용하겠다고 선언했고, 유럽연합(EU) 등은 섬유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폐기되는 섬유·의류 중 가장 큰 비중(40~50%)을 차지하는 폴리에스터 복합소



효성티앤씨가 버려지는 의류 및 원단을 섬유로 리사이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효성티앤씨

재를 새로운 섬유소재로 재생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사업에는 올해 국비 40억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352억원(국비 299억원, 민자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 기업과 기관은 2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오

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서울 남대문호텔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작년 8월 발표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에서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섬유 리사이클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순환경제 기조로 빠르게 재편 중인 글로벌 섬유패션 시장을 공략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미 착수한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2022~2025년, 국비 148억원)', '바이오매스 비건레더제조기술 개발(2024~2028년, 국비 286억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섬유 업계 친환경 전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근로자가요제 왕중왕전 참가하세요”

근로복지공단, 28일까지 신청 접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KBS와 공동 주최하는 '제46회 근로자가요제'를 역대 본선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왕중왕전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가요제는 근로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근로자문화예술제'의 한 분야로, 1985년 5월에 신설돼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근로자가요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특별히 왕중왕전으로 진행된다.

왕중왕전은 1985년부터 2023년까지 본선에 진출한 수상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가요·팝송·성악·민요 등 장르에 제한이 없다. 또한, 창작

곡으로 출전하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근로복지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본선 경연은 4월 11일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다. 본선 무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KBS 1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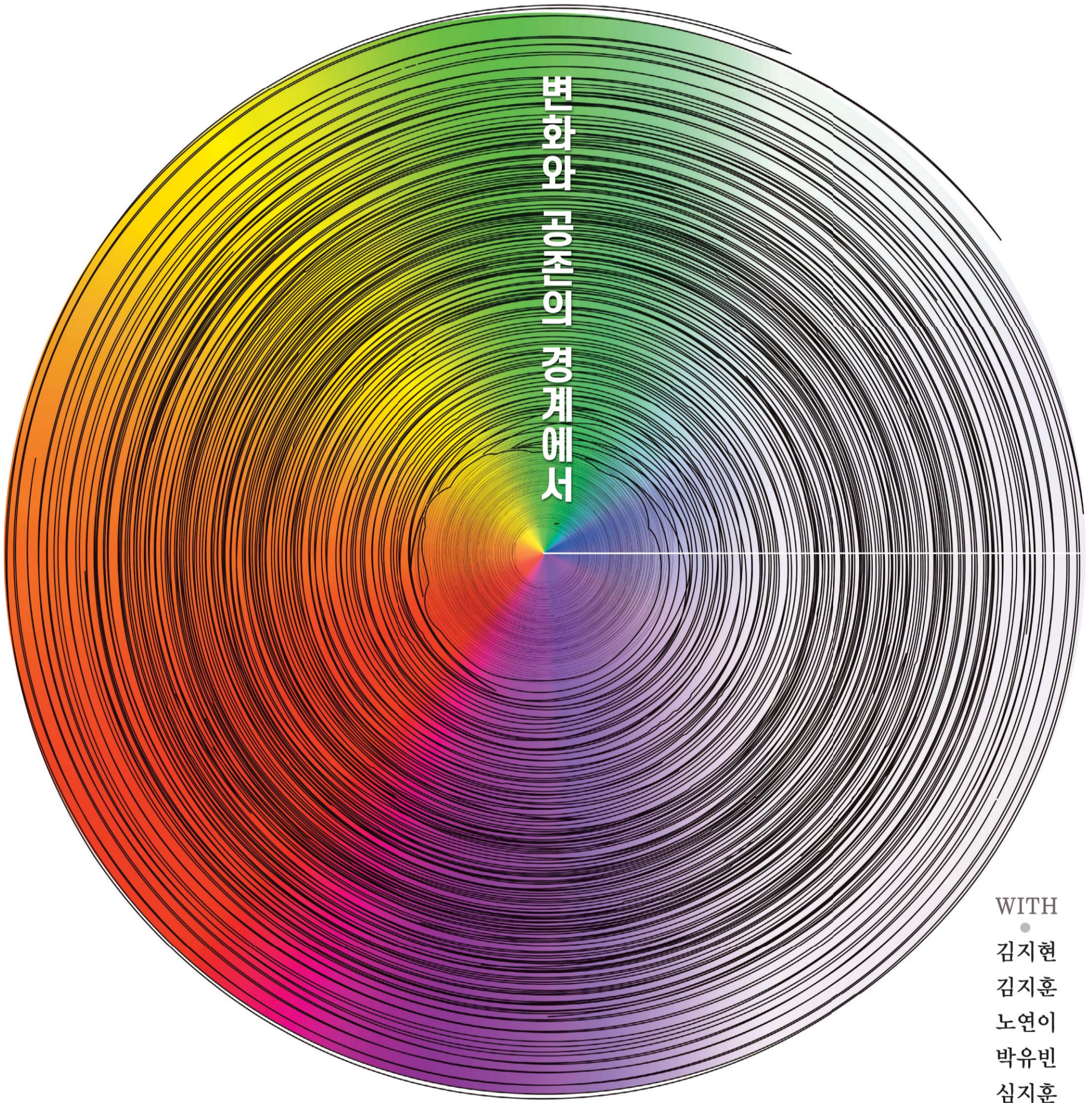
근로자문화예술제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KBS미디어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대환 기자



Gallery **오름**  
기획초대전

# ESTUARY

## 에스추어리



변화와  
공존의  
경계에서

WITH  
● 김지현  
김지훈  
노연이  
박유빈  
심지훈  
오승경  
조성훈

주최 Gallery **오름** 후원 **오름비** **동성제약** 신안개발  
• 갤러리아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T. 02.6743.3370 • 관람시간 11:00-19:00 \*일·월요일 휴관

2025. 2. 6 Thu - 2. 15 Sat



# 부산시, '희망2025나눔캠페인' 성료... 134억7000만원 모금

지난달 62일간의 릴레이 마무리 목표액 26.1억 초과... 최고 실적 BNK금융그룹, 화승그룹 등 영향



'희망2025나눔캠페인' 로고.

/부산시

부산시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2025나눔캠페인' 62일간의 릴레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부산을 가치있게'라는 표어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성공리에 완료됐다.

1월 31일 오전 11시 기준 '희망2025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124도, 모금액은 134억 7000만원으로 이는 목표액을 26억 1000만

원 초과한 금액이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이다.

모금액은 현물 모금은 포함되지 않은 실적으로 현금 총 134억 7000만원 상당이며 이에 따라 최종 나눔온도 실적은 124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BNK금융그룹 총 12억 원 기부, 1월 화승그룹 4개 계열사 나눔명문기업 동시가입 등 지역 향토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져 전년 캠페인 대비 기업 기부금 7억여 원이 증가한 점이 역대 최고 모금액 달성의 주된 요인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3일에는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 100도를 조기에 달성하며 연말연시 때서운 추위와 불경기에 얼어붙은 지역 분위기를 훈훈하게 달궜다. 역대 100도 달성 일자는 ▲2022년 1월 25일 ▲2023년 1월 27일 ▲2024년 1월 15일로, 이번 달성일

은 최근 4년 중 가장 빠른 시기다.

또 이번 '희망2025나눔캠페인'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기부자들이 이어지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박형준 시장은 "희망2025나눔캠페인이 성료된 것을 축하하며 이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나눔 선순환의 시작"이라며 "캠페인 성공 60%는 지역연계 모금으로 시와 16개 구·군 그리고 부산시민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을 살피고 보듬는 시민들의 마음이야말로 부산의 저력이며 성장 동력이다. 앞으로도 사회공헌기업·단체와 적극 협력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으로 따뜻한 의지치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제9회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시상식장에서 강진군 공무원들이 수상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강진군

### 강진군 푸소, 韓 브랜드 명예의전당 선정

강진군의 농어촌 체류형 관광 브랜드 '푸소(FU-SO)'가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에서 공공부문(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국내 산업 발전과 소비자 만족에 기여한 우수 브랜드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 전남도, 장애인 자립·돌봄서비스 강화 광주시, 오는 5월 '세계인권도시포럼' 연다

### 예산 1800억 확보... 전년비 8.6%↑ 활동지원사 서비스 단가 인상 지원

전남도가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1800억 원을 확보, 장애인 돌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142억 원, 비율로는 8.6%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불편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현재 전남에선 5700여 활동지원사가 6500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하며 사회참여를 돕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하는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만6150원에서 1만 6620원으로 2.9% 인상해

돌봄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는 등 장애인 자립 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비지원 외에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등급에 따라 월 최대 458시간까지 전남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며 취약계층과 위기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은 내년 11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도서·산간지역 거주자나 천재지변, 감염병 환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가족에 의한 급여제공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더욱 폭넓은 돌봄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5·18기념주간에 맞춰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오는 5월 15~17일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개최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20년부터 6년 연속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와 공동주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제협력을 이어가며 인권도시의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 인권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로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 국가 폭력 및 인권탄압 등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국제기구·국내외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선정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전쟁과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개인에게 심각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발생시킴으로써 인류공동체의 평화로운 삶과 공존을 파괴한다.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평화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포럼을 통해 평가가 갖는 적극적인 의미를 탐색하고 모든 반평화적 상황에 맞서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도시 연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5·18기념주기와 맞물려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고,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개최 시기를 10월에서 5월로 옮겼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광주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최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 유일의 국제인권포럼이다"고 말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 포항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본격화

### 114억 투입... 수소승용차·버스 보급

포항시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과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수소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114억 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91대와 수소 버스 24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와 '유니버스(현대자동차)'이며, 수소차 구매 시 승용은 1대당 3250만 원, 버스는 1대당 3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90일 이상) 및 법인·기업,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며, 우선 접수순으로 보조금이 지급



포항 장흥 수소 충전소.

된다.

다만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두 달 이내에 출고 가능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및 환경부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수소버스 약 160대를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경북 최대 규모인 장흥 수소 충전소를 사업 개시한데 이어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영일남4산업단지 '북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역핵수소 기반 수소 교통 복합기지'를 구축 중에 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 경주시, APEC 정상회의 대비 도로 정비

### 보문단지 등 5개 노선 대상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문단지를 포함한 주요 도로를 정비한다.

이번 정비는 정상회의장 주변 도로 환경을 개선해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지는 경감로, 보문로, 보불로, 불국로, 산업로, 서라벌대로 등 5개 노선이다. 총 사업비 247억 원(국비 15억 원, 도비 129억 원, 시비 103억 원)이 투입된다.

정비 구간은 총연장 63.5km이며, 주요 사업은 ▲도로 포장 ▲안전시설물 및 이정표 정비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 ▲가로등 및 공원등 설치 등이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특히 회의장 주변인 보문단지 내 도로 정비에 111억 원을 투입해 가로등 300본과 공원 등 400본을 새롭게 설치하고, 보문교삼거리 우회전 차로를 110m 확장할 계획이다.

불국사 주변 도로(보불로·불국로·영불로)와 산업로(용강의동) 구간에도 인도와 가로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라벌대로(경주IC배반네거리)와 박물관 주변 도로(원화로·양정로·분황로)에는 경관 조명과 가로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에 나섰으며, 오는 3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8월까지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경북 안동시는 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및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난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20~49세 남녀 모두(여 13만원, 남 5만원) 총 3회 확대한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 경남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A등급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A는 상위 10%만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다.

경남은 이번에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년 연속 전국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을 지수화한 값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 울진군 '걸어서 건강속으로' 챌린지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 건강걷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걸어서 건강속으로' 챌린지를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개월간 운영한다.

'걸어서 건강속으로 챌린지'는 매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15만보 걷기(1일 최대 1만보 인정)를 달성한 주민 중 추첨을 통해 250명에게 울진사랑카드 1만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걷기를 생활하고자 하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커피·햄버거 가격 줄인상... 연초부터 먹거리물가 '비상'

스타벅스코리아·할리스·폴바셋 설 연휴 직전 200~400원 인상 버거킹, 일부제품 100원씩 올려 동서식품·광동제약·오뚜기 등도 커피·음료·컵밥 등 출고가 인상 외식업계 '직장인 점심' 수요 공략 3000~6000원대 가성비 메뉴 출시



스타벅스가 지난달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커피류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최근 주요 커피·외식 프랜차이즈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부의 '공백기'를 틈타 식품업계의 도미노 가격 인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할리스, 폴바셋 등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설 연휴 전인 지난달 24일부터 가격을 200~400원 인상했다.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동서식품도 지난해 11월 인스턴트 커피와 커피 음료 등 출고 가격을 평균 8.9% 인상한 바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PB 커피 판매가격을 100원씩 인상했다.

햄버거 외식 브랜드인 버거킹은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씩 인상했다. 버거킹의 대표 메뉴 와퍼는 7100원에서 7200원으로, 갈릭볼고기와퍼는 7400원에서 7500원으로 조정했다.

가격 인상은 식음료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동제약은 이달 1일부터 옥수수수염차와 진한헛개차 편의점 판매 가격을 10% 인상했다. 오뚜기도 컵밥 7종의 편의점 판매 가격을 기존 4800원에서 5400원으로 12.5% 인상했다.

앞서 동아오츠카는 포카리스웨트 등 음료 가격을 평균 6.3%씩 올렸고, 대상은 지난달 16일부터 청정원 마요네즈, 드레싱 등 소스류 제품과 후추 가격을 평균 19.1% 인상했다.

기업들은 국내의 경영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내수 절벽에 고통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어 할인 프로모션도 축소하는 분위기다.

외식물가도 상승세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외식 메뉴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서울지역 자장면 가격은 7423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겹살은 지난해 5월 서울 기준으로 처음 2만원 시대를 열었다. 삼계탕도 지난해 7월 1만7000원을 넘어선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냉면 가격이 1만2000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소비자선호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약 4.6% 수준이다.

런치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자 외식업계는 가성비 메뉴를 출시하며 점심 수요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이랜드리테일이 김스클럽 내에 선보인 즉석조리식품 브랜드 '델리바이 애슐리'가 대표적이다. 델리바이 애슐리는 1개당 3990원이라는 가격에 상품을 내놓으며 약 10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했다.

가격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도 장점이다. 델리바이 애슐리 메뉴

는 200여 종의 즉석조리식품으로 구성돼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KFC는 최근 텐더를 활용한 한 끼 메뉴 '켄치밥' 2종을 4000원대에 출시했다. '갓양념 켄치밥'과 '데리야끼 켄치밥'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됐다. 단품 외에도 콤보(단품+콜라)와 세트(단품+콜라+코울슬로) 구성도 선보여 가성비 점심 메뉴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오리지널 치킨을 버거로 재해석한 '커널 버거' 2종은 3000~4000원대에 출시해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30만 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한솔도시락도 가성비 도시락 3종을 출시했다. 닭볶음탕 1종(데미 미트볼 닭볶음탕)과 파스타 2종(햄버그 나폴리탄 파스타, 소불고기 청양 크림 파스타)으로 4000~6000원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경우 내수 부진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진 만큼 가성비 제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SPC, 1.6억 弗 투입... 美 제빵공장 짓는다

텍사스에 15만㎡ 규모 부지 매입 투자계획·지원금 등 현지서 승인 올 여름 착공, 2027년 준공 예정 미국 전역·중미·캐나다 사업권



지난 달 27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Johnson County)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파리바게뜨 제빵공장 투자 인센티브 조인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 제빵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

SPC그룹은 미국 텍사스 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Highpoint Business Park)'에 약 15만㎡(4만 5000평) 규모의 제빵공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투자 계획과 지원금 등을 현지 지방정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최종 절차인 인센티브 조인식은 지난 달 27일 존슨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허진수 SPC그룹 사장과 다이애나 밀러(Diana Miller) 존슨 카운티 경제개발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허진수 사장은 지난 달 20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현지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경제 협력과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또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아메리카 본부 직원들과 회의를 갖고 제빵공장 투자 관련 마지막 점검을 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미국 제빵공장 건립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 강화 방침에서 비롯됐다"며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관세 제도를 비롯한 미국 산업 정책을 고려해 추진이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지리적으로 미 전역을 비롯해 캐나다·중미 지역까지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벌리슨시는 텍사스

주 최대 도시인 댈러스-포트워스 도시권에 속해 있어 고용 환경도 좋다.

SPC그룹은 이 곳에 1억6000만 달러를 투자해 제빵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 여름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존슨 카운티와 벌리슨 시 등 지방 정부는 파리바게뜨에 10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텍사스 주는 공장 건립에 필요한 장비 구입 시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파리바게뜨는 최대 14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SPC 텍사스 공장은 파리바게뜨 매장이 확산 중인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향후 진출 예정인 중남미 지역까지 베이커리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 시설이다. 우선 첫 단계로 연면적 약 1만 7000㎡(52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이후 파리바게뜨의 사업 확장에 맞춰 2030년까지 총 2만 8000㎡(8400평)으로 확장해 연간 5억 개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공장에서 약 450명 규모의 고용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벌리슨시에 위치한 기업 중 Top 5에 해당한다.

공장이 건립되면 파리바게뜨의 미주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북미에 21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개 매장 개장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도 기존 29개 주에서 35개 주로 진출을 확대하고, 100여 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미국 현지 유력 미디어들이 평가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순위에서 Top 50위권에 매년 진입하고 있다.

SPC그룹은 텍사스 공장이 생산 및 물류 효율 극대화과 제품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장에는 현지 가맹점주 교육 시설도 들어선다. 또한, 계열회사 SPC삼립의 북미 시장 대응 및 현지화 전략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SPC그룹 전체 글로벌 사업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SPC삼립은 북미에서 호빵·크림빵·약과 등 K-푸드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허진수 SPC그룹 사장은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비롯한 북·중미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글로벌 사업 현지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세계 시장에 K-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AI활용 제품 라벨 표시사항 검토 자동화

롯데칠성음료, 검토시간 50% 단축

롯데칠성음료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 라벨 표시사항 검토 시스템(AI Label InSpection System, AILISS)을 구축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AI 에이전트, 검색 증강 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 등 AI 기술을 활용해 제품 라벨 표시사항 검토를 자동화했다고 3일 밝혔다.

제품 관련 정보와 식품안전나라 품목 정보 등을 직원이 수작업으로 검토하는 것에서 벗어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도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은 라벨 이미지에 대한 학습을 통해 디자인 요소가 포함된 복잡한 글자체도 95% 정확도로 인식이 가능해 다양한 제품 라벨을 인식할 수 있다. 글자를 추출하고 생성형 AI를 통해 식품 유형, 원재료, 영양성분 등 검토가 필요한 정보를 분류한다.

AI 에이전트 기술은 AI가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오류를 검증하는 등 제품 라벨 정보 검토 과정을 자동화했다. 오타자 검증뿐만 아니라 추출된 글자를 도식화하고 연구 보고서, 체크리스트와 연동시켜 내역을 검증한다. 국내 식품사 최초로 기존 수기 작업을 AI가 대신 수행해 30분 이상 소요되던 제품 라벨 검토 시간을 50% 이상 단축하고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신원선 기자

## 롯데웰푸드, 식사대용 제과 브랜드 론칭

'컴포트잇츠이너프' 신제품 6종 출시

롯데웰푸드가 영양강화&식사대용 제과 브랜드 '컴포트잇츠이너프(ComfortEatsEnouF)'를 론칭하고 6종의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브랜드명은 간편한 먹거리를 의미하는 'ComfortEats'와 하루를 위한 충분한 영양이라는 'Enough nutrition of your fine days'를 결합했으며 균형 잡힌 영양 설계를 위해 롯데중앙연구소의 보리 및 통곡물 연구 결과와 제품 개발 노하우를 적용했다.

롯데웰푸드는 하루 세 끼를 차려 먹는 전통적인 식사 대신 필요시 간편하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을 채우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프 퍼포머(Life Performer: 내 방

식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 일과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꾸리며 살아가는 이들의 '요즘 한 끼' 식문화에 주목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약 34.6%로 2014년(24%)에 비해 10%p 이상 증가했다. 한편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률은 2014년 26.5%에서 2023년 38.2%로 증가했다. 과거보다 식사 횟수는 줄었지만, 식품 구매 시 영양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신원선 기자



# 대웅제약, 디지털헬스케어 확장... '씽크' 보험수가 획득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국내 첫 국산화한 2등급 의료기기 24시간혈압측정검사 획득도 예정  
준중합병원까지 공급 확대 계획

대웅제약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확장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입원환자 관리 시스템 '씽크'가 국산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로는 처음으로 보험수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씽크'는 씨어스테크놀로지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3월 씨어스테크놀로지와 씽크 국내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씽크는 웨어러블 바이오센서, 데이터 수집장치(게이트 웨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심전도,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해 의료진에게 즉각 전달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 질을 높여준다.



3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씽크 기자간담회'에서 조병하 대웅제약 마케팅 사업부장이 디지털 헬스케어 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이번 보험수가 획득이 씽크의 이러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씽크는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됐고, 취득 요양 급여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1일당 심전도감시 4만4287원, 산소포화도 측정 9971원, 심전도 침상감시 1만 8803원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3분기에는 24시간혈압측정검사에 대해서도 1만5190원 수준의 급여 획득을 추가적으로

로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기술을 구현한 소프트웨어비급여서비스도 선보인다. 씽크를 도입한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심정지 및 악성부정맥 예측 서비스, 패혈증 예측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병하 대웅제약 마케팅 사업부장은 "씽크의 경쟁력은 기술 고도

화와 비용 경쟁력"이라며 "디지털 의료기기 국산화를 통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기존 고가의 장비나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까지 낮췄다"고 강조했다.

씽크는 현재 10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대웅제약은 씽크 공급을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준중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3000개 병동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씽크가 해당하는 국내 의료 시장 규모는 70만 병동, 6조5000억원에 달한다.

대웅제약은 앞서 지난 2020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집중해 왔다.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 웨어러블 심전도기기 '모비케어',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 실명질환 진단 보조 솔루션 '위스키' 등을 지속 도입했다.

그 결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세와 함께 종합병원 중심으로 가능했던 24시간 심전도검사, 연속 혈압 측정검사 등이 지역

의원에서도 실행되고 있는 추세다.

24시간 심전도검사 월평균 건수는 2022년 4083건에서 2024년 8290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연속 혈압 측정검사의 경우 1406건에서 9966건으로 급증했다. 각각 대웅제약이 공급하고 있는 모비케어, 카트비피 등의 확산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당뇨, 심장 및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환부터 일상 속 건강검진까지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사업을 적극 펼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날 조병하 대웅제약 마케팅사업부장은 "과거에는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예약해 방문하고 이후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현대에는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가 감지되거나 질환이 예측되면 의료진들이 빠른 진단과 처방, 치료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 현장에 혁신 기술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셀트리온, ADC 항암신약 인체임상 '첫발'

(항체·약물접합제)

美 FDA에 CT-P70 IND 제출  
올해 중반 첫 환자 투여 목표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순차 돌입

셀트리온이 항체·약물접합제(ADC) 항암신약의 첫 인체 임상에 돌입한다. 바이오시미미러 선도 기업을 넘어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의 전환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ADC 항암신약 'CT-P70'의 글로벌 임상 1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IND 신청은 셀트리온이 지난 달 열린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 도약 전략'의 첫 실행 사례로, 발표 약 보름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CT-P70은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위암 등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개발 중인 ADC 항암 치료제로, 암세포에

서 활성화해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성장인자 수용체(cMET)'를 표적으로 삼는다. 셀트리온은 올해 중반 첫 환자 투여를 목표로 글로벌 임상 1상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CT-P70은 앞서 시험관, 동물실험 등 비임상을 통해 폐암, 대장암, 위암을 포함한 다수의 고형암 모델에서 탁월한 종양 억제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특히, 경쟁사 cMET 표적 ADC에 비해 cMET 저발현 종양에서도 우수한 효능을 나타냈다. 또한 치료지수 측면에서 임상개발 중인 경쟁사 파이프라인을 능가하는 높은 수치를 확인해, 같은 기전 치료제 중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베스트인클래스(Best-in-class) 신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CT-P70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공동개발한 신규 페이로드 'PBX-7016'을 적용했다. PBX-7016은 기존 개발된 기술 대비 효능과 우수

한 안전성을 확보한 플랫폼 기술로, 낮은 독성과 높은 투여량을 통해 우수한 종양내 침투 등에서 강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신약개발사로의 전환도 본격화 된다. 셀트리온은 CT-P70을 시작으로 올해 총 4건의 IND를 제출해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절차에 순차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2026년에 ADC 신약 2건, 다중항체 신약 2건, 2027년에는 ADC 신약 3건, 2028년에는 ADC 신약 1건, 다중항체 신약 1건 등 총 13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개발이 예정된 상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70을 기존 ADC 제품 대비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항암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혁신적인 치료제를 지속 개발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혜택을 제공하고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에이피알, 포맨트 '짱구 에디션' 완판

출시 약 2달 만의 '성과'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퍼펙트&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포맨트에서 공개한 '코튼 허그 리미티드 짱구 에디션'이 출시 약 2달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매 성과는 브랜드 사상 최단기 실적이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지난해 11월 포맨트 공식몰에서 출시 7일만에 완판됐다. 타 채널에서는 최초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약 2달 만에 전체 물량이 전량 소진됐다.

포맨트 한정판 제품군 가운데 이번 짱구 한정판은 초도 물량 완판에 따라 추가 발주까지 이뤄지는 등 최대 발주량으로 선보여졌음에도 빠른 속도로 판

매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번 완판 행진을 일으킨 짱구 한정판은 포맨트의 대표 향수 제품인 '코튼 허그'에 은방울꽃, 장미, 자스민, 오렌지 꽃 등의 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포맨트는 계절마다 해당 계절의 느낌을 향기로 구현한 한정판 제품을 지속 출시해 왔다. 짱구 한정판의 경우 겨울을 맞아 '코튼 허그' 이불을 덮고 잠든 짱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향후에도 포맨트 계절별 한정판 제품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포맨트 공식몰 내 '콜라보레이션' 메뉴를 별도 개설해 지금까지 협업해 온 한정판을 소개하는 등 소비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청하 기자

## CJ올리브영, 토트넘 홋스퍼 한정판 공개

'아이디얼 포 맨' 스킨케어 제품 3종

CJ올리브영은 남성화장품 브랜드 '아이디얼 포 맨'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구단 '토트넘 홋스퍼'와 협업한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디얼 포 맨 X 토트넘 홋스퍼' 한정판은 아이디얼 포 맨의 스킨케어 제품인 퍼펙트 올인원, 시카 올인원, 퍼펙트 탄력 등 3종으로 구성됐다. 해당 제품은 공식 라이선스 제품으로, 제품 디자인에는 토트넘 엠블럼과 구단을 상징하는 하얀색·남색이 새롭게 적용된 것도 특징이다.

한정판 구매 고객은 특별 제작된 스포츠 양말도 증정받을 수 있다. 올리브영은 이번 한정판 출시를 통해 남성 고객의 뷰티 관리에 대한 선호도가 보다



'아이디얼 포 맨 X 토트넘 홋스퍼' 한정판 3종. /CJ올리브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리브영이 남성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체 조사에 따르면 남성 10명 중 9명은 '깔끔한 인상을 위해'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은 '뷰티가 주는 '꾸미는' 인상보다는 '관리한다'는 의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 인벤티지랩, 큐라티스 경영권 인수

GMP 확보, CDMO 생태계 구축 박차

인벤티지랩이 백신개발 및 위탁개발 생산(CDMO) 전문 기업 큐라티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CDMO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인벤티지랩은 3일 큐라티스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전환사채 인수 및 보통주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3월까지 2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물량을 포함할 경우 큐라티스 지분의 약 40%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인벤티지랩은 큐라티스의 경영권 인수를 통해 큐라티스 오송바이오플랜트 내 장기지속형 주사제 전용 제조설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과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인벤티지랩은 앞서 자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확보를 위해 최근 538억원의 대규모 편당을 추진한 바 있다. 큐라티스의 오송바이오플랜트는 cGMP, 유럽(EU)-GMP 등 글로벌 수준의 GMP 제조시설을 갖춘 사이트로, mRNA 백신의 글로벌 임상생

플 제조에 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기술 및 제조 플랫폼 기술인 IVL-DrugFluidic 을 오송바이오플랜트 공장에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및 국내 제약사와의 임상 프로젝트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상 시험용 시료 생산 이후의 상업화 단계의 양산도 동일한 제조소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돼 글로벌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다른 플랫폼인 차세대 mRNA 백신 및 치료제에 적용되는 지질나노입자(LNP) 사업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도 진행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www.newsis.com



## 뉴스시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 뉴스시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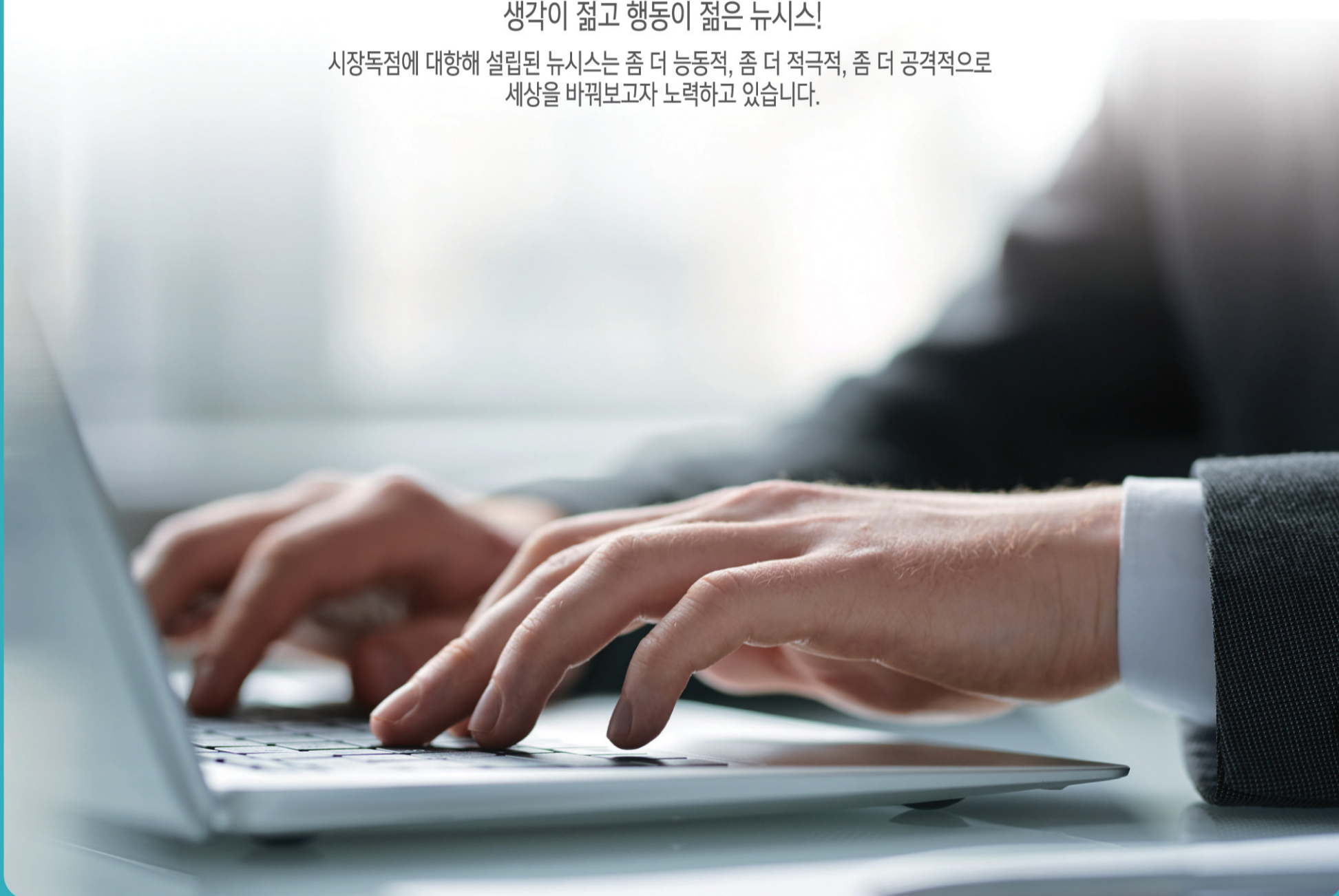


사진기사. 1500여개

## 뉴스시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BNK부산은행, 부산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BNK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100억원을 특별출연해 총 15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우대금리도 지원한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오른쪽 첫번째)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iMBank, 임직원 헌혈 행사... 생명 나눔가치 실현

iMBank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임직원 참여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헌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생명 나눔가치 실현 및 자발적 헌혈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황병우 iMBank 은행장(앞쪽 가운데)이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iMBank



인하대, 동계방학 봉사활동 공모전... 지역사회 기여

인하대학교가 겨울방학 동안 '인하 동계방학 봉사활동 공모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하 동계방학 봉사활동 공모제는 학생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실행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인하대

### 신한금융 희망재단 “스퀘어브릿지 인천’ 신청하세요”

신한금융 희망재단이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은 신한금융과 인천시, 인천스타트업파크가 닥테크, 바이오테크, 친환경 및 지속 가능 혁신 기술 등 국내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사업화 지원금 ▲재무 진단 및 신한은행 RM 연계 ▲전문 펀드 투자 연계 ▲인천스타트업파크 사무공간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된다.

특히 신한금융과 인천시, 셀트리온 등 민·관이 협력해 상용화 검증, 공동개발 및 파트너십 체결 등 오픈이노베이션 기회도 제공한다.

모집 관련 상세 내용은 신한금융 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달 20일에 최종 선정 업체가 발표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인사

◆해외건설협회 ◇본부장급 보직 △경영지원본부장 겸 상무이사 김태엽 △글로벌사업본부장 겸 상무이사 김운중 △정책본부장 겸 상무부 정창구

## 라이엇게임즈, 7번째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 후원

‘경복궁 선원전’ 편액 환수 성공 27일 고궁박물관에서 공개 예정

경복궁 전각 선원전의 편액이 100년 만에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선원전은 조선시대 궁궐 내에서 역대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고 제례를 올리던 신성한 공간이다. '선원(璿源)'은 '옥(玉)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왕실의 혈통과 정통성을 상징한다. 편액은 종이나 비단, 널빤지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쓴 액자로, 보통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두는데 건물의 규모와 격식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됐다.

국가유산청과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은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경복궁 선원전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편액을 일본에서 환수했다고 3일 밝혔다. 환수된 편액은 3·1절을 앞둔 오는 2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경복궁 선원전(璿源殿) 편액 정면. /국가유산청

이번에 돌아온 편액은 가로 312cm, 세로 140cm 크기의 대형 목판으로, 검은 바탕에 금빛으로 새겨진 '선원' 글자가 특징이다. 조선 후기 문신 서승보(1814~1877)의 글씨로 추정되며, 1868년 재건된 경복궁 선원전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승정원일기'에는 당시 선원전 편액의 글씨를 서승보 서사관(書寫官)이 맡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경복궁 선원전은 일제강점기에 철거돼 그 자리에 일본 사찰 박문사

(博文寺)가 세워졌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환수된 편액이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1916년 일본으로 반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편액을 보관하던 건물이 태풍으로 파괴되면서 한 건설업자가 이를 수거해 보관해 왔다. 2023년 일본의 한 고미술 경매에 출품되면서 존재가 다시 알려졌고, 국가유산청과 재단은 소장자를 설득해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을 통해 환수에 성공

## 예경탁 은행장, 경상남도육상연맹 통합 회장 당선

(BNK경남은행)

지역 육상·체육헌신에 높은 평가

BNK경남은행은 예경탁 은행장이 경상남도육상연맹 통합 6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3일 밝혔다.

예경탁 은행장은 지역 육상과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경상남도육상연맹 통합 5대 회장에 이어 6대 회장으로 재차 선정됐다.

앞서 경상남도육상연맹 선수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32회 전국생활체육육상경기대회'에서 종합 1위, '2024 전국생활체육대추전 육상경기'에서 2위, '제30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육상경기대회'에서 3위를 거두는 등 우수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또한 BNK경남은행은 지난 1997년부터 경상남도육상연맹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은 "경상남도를 대표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경

상남도육상연맹 소속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육상이 지역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아모레퍼시픽 희망가게 창업주 모집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8일까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희망가게'의 창업주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가게는 한부모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는 한부모 여성으로, 창업 계획을 가진 중위소득 70% 이하 여성 가구주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각 지역별 협력기관에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희망가게 창업 대상자에게는 최대 4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제공한다.

올해 희망가게 창업주 공모는 이번 1차 모집에 이어 5월과 8월에 진행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정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현대로템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경기 의왕시 본사에서 우수연구실 명판과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현대로템,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연구 안전관리 역량 인정받아

현대로템이 연구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로부터 인정 받았다.

현대로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인증제는 정부가 산학연 각 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 확

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인증은 안전환경 시스템, 안전경영 활동수준, 관계자 안전의식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한 곳은 레일솔루션연구소 산하 수소모빌리티 시험실, 조합시험장 등 2곳이다.

/양성운 기자 ysw@

했다. 환수된 편액은 오는 2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처음 공개된다. 이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예정이다. 또, 편액이 건축·서예·공예가 결합한 종합 예술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학술 연구와 전시 등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환수는 라이엇게임즈가 지원한 7번째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사례다. 라이엇게임즈는 2012년부터 국가유산청과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후원 약정을 맺고,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는 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앞서 ▲석가삼존도(2014년)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축책(2018년) ▲척암선생문집책판(2019년) ▲백자이동궁명사각호(2019년) ▲중화공인(2019년) ▲보록(2022년) 등을 국내로 환수하는데 기여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NH투자증권 김석찬 총괄대표 선임

(경영지원부문)

NH투자증권은 김석찬 부사장(사진)을 경영지원부문 총괄대표로 신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사장은 1987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중앙회 소득지원국장, 회원종합지원부 부장,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본부장, 농협생명 사업2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영업, 마케팅 및 경영 부문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농협중앙회, 은행, 생명 등 주요 계열사에서 요직을 거친 금융 전문가"라며 "앞으로 그룹 내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롯데온 '광주 푸드클럽' 행사

롯데온은 광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력해 '광주광역시 푸드 클럽' 행사를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의 유명 맛집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함께 개발한 밀키트 상품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명담 안유성 명장의 '한우 나주곰탕' ▲광주세계 김치문화축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빛고을김치 갓김치' ▲광주 서구 치평동 '삼희불나'의 '삼대낙지 낙지볶음' ▲광주 남구 진월동 '시골향추어탕' 등이 포함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자발적 불편



연운열의  
푸드톡

한해가 시작되는 원단에는 새로운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중 압권은 건강과 관련된 각오일 것이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아침에 냉장고에서 꺼내 간단히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냉동식품, 점심에는 밀키트를 활용한 간편식, 저녁에는 배달 앱을 통해 클릭 몇 번으로 문앞까지 배달되는 요리들. 이러한 풍경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이 가져온 이면에는 건강 악화와 환경 파괴라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숨어 있다.

식품산업의 벨류체인과 연관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편리함에 안주하게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때때로 자발적인 불편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자발적 불편'이란 스스로 덜 편리한 방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내면의 만족감을 의미한다.

식습관에 이를 적용한다면 인스턴트 음식보다 가공이 덜 된 '최소가공식품'을 선택하고, 빠르고 간단한 요리보다 손이 조금 더 가더라도 직접 조리하는 습관을 통해 건강한 식탁을 되찾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선택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균형 잡힌 영양소의 섭취는 면역력을 높이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미숙하더라도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권장한다. 신선한 재료를 직접 선택하고 조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당분과 소금, 첨가물 등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조)가공식품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수

많은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다. 자발적으로 가공식품 섭취 횟수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외식 역시 편리하지만, 영양소 조절이 어렵고 칼로리가 높을 수 있다.

식재료의 원산지와 생산 과정에 관심을 가져 보자. 대형마트에 뽑나듯 포장된 식재료 대신 지역 농산물 직매장이나 로컬마켓을 방문해서 제철 식재료를 구매하면 편리함이 주는 즉시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 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자발적 불편을 통한 건강한 식습관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의 식습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요리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건강이 개선되면서 자신감과 행복감이 증가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배달 음식으로 인한 포장 쓰레기, 간편식 생산 과정에서의 자원 낭비 등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작은 불편함이 독자들에 예상치 못한 행복과 변화를 선사하게 될 것이다. /식품기술사·푸드테크 칼럼니스트

## '딥시크' 줄타기 눈치싸움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최근 중국판 챗GPT '딥시크(DeepSeek)'가 등장하면서 전세계 정보기술(IT)분야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딥시크로 인해 약재를 얻는 국가와 기업이 있는 반면 호재를 기대하며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딥시크는 최적화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고성능 모델을 구현하는 데 압도적인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딥시크 개방형 모델이 시장 경쟁을 넓히며 한국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국은 딥시크를 제한하는 한편 관련 일부 기업은 발빠르게 관련 AI

모델을 공급하며 전세계가 '딥시크 줄타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딥시크 규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AI 시장은 엔비디아 중심의 고비용 GPU로 돌아갔지만 딥시크의 등장으로 시장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물론 주요국들은 딥시크 사용 금지를 공표하며 견제에 나서고 있다. 딥시크 AI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국 정부로 데이터가 유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주정부가 지급한 기기에서 딥시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어 일본과 대만도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딥시크를 금지했다.

반면 일부 기업은 딥시크와 동맹을 선언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 웹서비스(AWS)는 딥시크의 오픈소스 AI 모델 '딥시크-R1'을 자사 AI 플랫폼 '아마존 베드록' 등에서 제공한다고 공식화했다. 일부 국내 기업도 딥시크의 등장으로 호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딥시크에 올라타기에는 아직까지 눈치가 필요한 상태다. 정확도와 보안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또 미국의 대중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삼성전자의 중국시장 진입장벽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기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다. 격동은 누군가에게 기회로 작용되기 마련인 만큼, 현명한 실행력으로 '세계 AI 3강'의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4일 (음 1월 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해보라. 48년생 행동은 사고에 의해 지체당한다는데. 60년생 가벼운 산책으로 건강을 보살피라. 72년생 시장이 반찬이니 저녁이 꿀맛. 84년생 일취월장할 경사의 기회가 온다.



37년생 장황한 자기소개는 자괴감만 일어난다. 49년생 내일 뛰지 않으려면 오늘 걸어야 한다. 61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는 버릇을. 73년생 목이 말라야만 그때 우물을 팔 것인가. 85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38년생 투자인지 그냥 적산인지 잘 구분. 50년생 의미부여는 왜곡된 상황을 초래. 62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74년생 외로운 나그네 신세처럼 공연히 서글프다. 86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39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도록. 51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려 온다. 63년생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75년생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때는 늦으니 기회를 상실. 87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40년생 소통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52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분발. 64년생 주변에 인색하지 않도록. 76년생 남의 비위에 들도록 노력하기보다는 실력으로. 88년생 둘다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4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53년생 역마의 변화이니 움직여라. 65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도 생각. 77년생 정확한 의사 표현이 필요한데. 89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연락이 오니 마음이 기쁘다.



42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 54년생 영업은 적극적으로 행동. 66년생 재물이 없어지니 나그네의 신세이다. 78년생 일의 근본을 알고 깨우쳐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90년생 가족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



43년생 말을 해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55년생 믿어 주는 사람이 있다. 67년생 원가를 시작하기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79년생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을 것이니 소통을. 91년생 밤을 이겨낸 자만이 찬란한 새벽을 볼 자격이 있다.



44년생 멀리 있다고 소홀히 대하면 원망을 듣는다. 56년생 이직보다는 기술 공부하도록. 68년생 사돈에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 80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살을 부르는데. 92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걸 명심.



45년생 이제라도 컴퓨터를 배워 컴맹에서 탈출하도록. 57년생 눈에 물들어 옷들이 일이 해결. 69년생 거품은 사라지고 현실에 직면. 81년생 배가 고프다 먹으면 무엇이든 맛있다. 93년생 친구에게 좋은 일을 양보하고도 이득 발생한다.



46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58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70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진다. 82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떨어지지 않도록. 94년생 목감기가 예상되니 찬바람 맞지 않도록.



47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59년생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는다. 71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83년생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자금계획을. 95년생 한 번 속으면 남 탓 두 번 속으면 본인 탓.



## 김상회의四季 자신의 장점을 안다면

명리학에서 사주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야심 있는 표정의 젊은 직장인이 자리에서 밀려날 것 같아 불안하다며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는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학교 때는 최우수 성적을 열심히 만들었고 졸업한 뒤에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회사에서는 기를 쓰고 노력해서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기획실에 들어갔다. 기획실에 어렵게 들어갔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 본인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지만 필자는 사주를 보니 한눈에 보였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애먼 곳에서 힘을 쓰고 있었다. 그는 토사가 눈에 띄게 많았다. 토가 많은 사주는 사회성이 좋다. 사람을 사귀는 친화력이 좋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직감적으로 알아내는 센스가 있다. 사회성이 좋아서 누구를 만나도 척지치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당연히 친구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과 기획실의 궁합은 어떨까.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한 옷을 입고 억지로 웃고 있는 꼴이다. 본인이 어떤 기질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알았다면 기획실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부서로 기를 쓰고 달려갔으니 업무 실적이 좋을 수 없다. 사주 기질을 바탕으로 분석해서 부서를 옮기는 게 어떨까 싶고 권했다. 그는 몇 달 뒤에 마케팅 부서로 보직을 변경했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1년이 뒤에는 제품 기획이 성공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기뻐했다. 성공하기 위해 자신을 좀 더 알고 노력할 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사주에 나타난 기질이 어떠한지를 알면 계획이 현실과 더 가까울 수가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6	7	8	1	9			
	6		3					
1		7		4	5			
	9		5			8		
	4	7				8	3	
	7			1				6
		3	8		7			5
				6			5	
1	5	6	9		2			

	7	8	9	3	4	6	1	5
						2	8	
								4
8		9	6	5				
		3		4		5		
				9	3	8		6
4								
	5	4						
9	3	1	7	2	6	4	5	

8	7	2	8	6	9	9	1	2
6	9	2	1	9	6	2	8	7
9	1	9	2	7	8	2	6	1
7	9	6	9	1	2	8	1	8
1	8	9	2	6	2	7	9	1
2	8	2	2	1	7	6	9	
9	2	7	7	8	2	6	8	1
2	7	6	8	9	1	9	8	
8	6	1	8	1	7	9	9	2

8	9	7	9	2	2	1	8	6
2	6	1	8	2	8	7	9	9
8	2	6	9	9	1	2	8	7
9	7	8	6	2	2	1	9	
1	9	9	6	7	8	2	2	1
2	2	8	1	9	9	6	7	8
7	8	2	8	1	7	9	6	1
6	8	2	2	1	9	9	9	8
9	1	9	7	8	6	8	2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0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0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서울시, 매입 임대 목표치 미달... “상한제·구역제한 풀어야”

최근 5년간 목표 대비 실적 급감  
강남·용산 전무... 특정 지역 쏠림  
예산 집행률 저조... 실효성 논란  
“매입 기준 완화로 공급 확대해야”

서울시가 추진한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의 목표치와 실적 간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주택 매입 상한가 및 주택 매입 제한 구역 설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의 목표치와 실적 사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민간 주택을 사들여 청년 등에게 임대해주는 정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서울 도심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손진영 기자

됐다. 지난 5년간 주택 매입 계획 대비 실적은 2020년 97.2%, 2021년 56.7%, 2022년 13.5%, 2023년 36.5%, 2024년(9월 말 기준) 19.6%였다.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예산 편성 대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집행률 113.6%, 2021년 47.8%, 2022년 11.1%, 2023년 34.9%,

2024년 16.6%로 나타났다. 신우철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추진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서울시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의 매입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택 매입·공급·관리 과정을 보완해 보다 정교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

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주택 매입이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한제로 인해 시가 수요가 높은 도심이 아닌 비도심 지역의 주택을 다수 사들였고, 그결과 매입 임대 주택이 특정 자치구에 쏠리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2020~2024년 자치구별 주택 매입 현황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가 2155호(1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구 1572호(11%), 강동구 1354호(9.5%), 송파구 1252호(8.8%), 관악구 1083호(7.6%)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5개구에 소재한 주택이 전체 1만4282호의 51.9%(7416호)에 달하는 반면, 수요가 높은 용산(전체 매입 임대 주택 대비 0%), 강남(1.1%), 중구(0.4%)에서는 주택 매입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서울시에서 설정한 호당 매입 단가 상한액과 지역 시세 간의 차이

가 매입 임대 주택의 자치구별 지역 편중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신 예산분석관은 “2024년도 주택 매입 공고에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서도 매입 예산을 고려, 주택 매입가를 최대 6억원 내외로 설정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주택 매입 제한 구역도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매입 가능한 곳은 최근 2년간 사용 승인된 주택 중 미분양 공실이 많은 비도심 지역인 강서·구로·관악·은평·중랑·성북·도봉·마포·동작·강동구로 한정돼 있다.

신 분석관은 “미분양 신축 주택 매입의 경우, 서울시에서 매입 가능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며 “매입 임대 주택의 자치구별 지역 편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 초·중·고생 입학준비금 신청하세요” 광화문광장에 6·25참전국 상징 돌보 세운다

서울시교육청, 국·공·사립 전원 대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국·공·사립 초·중·고교 1학년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입학준비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25개 자치구와 함께 예산을 마련해 서울 소재 각종·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사립 초·중·고교 신입생들이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중·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30만 원을 교복 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지급한다.

모바일 포인트는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tart.sen.go.kr>)에서, 초등학교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로페이 포인트 사이트(<https://on.zeropaypoint.or.kr/index.do>)에서 각각 신청 가능하고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종료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들은 학교별 확인 과정을 거쳐 중·고등학교는 2~3월 중, 초등학교는 3월 중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차 집중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에 입학준비금 신청과 포인트 등록 등 2단계 운영 절차를 거치던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1단계로(입학준비금 신청) 간소화해 학부모의 신청과 포인트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 22개국 ‘감사의 정원’ 조성  
지하공간은 ‘세계적 다목적 광장’  
세종로공원도 도심숲으로 재정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을 만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는 설계 공모 당선작인 ‘감사의 빛 22’를 공개하고,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공모에는 31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삼건축사사무소, 프라우드건축사사무소, 엘피스케이프가 공동 응모한 ‘잇마루, 아랫마당, 추모공간:22’가 당선작으로 뽑혔다.

지상부 상징 조형물은 6·25 참전국을 나타내는 5.7~7m 높이의 22개 검은 화강암 돌보로 구성된다.

시는 “22개 참전국에서 채굴된 석재로 조형물을 만들고 측면에는 참전국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지상부. /서울시

유언어로 애송시, 문학작품, 글귀 등을 새겨 희생을 기릴 것”이라며 “22개 조형물은 한국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검은 석재의 물성은 이들 국가와의 단단한 유대감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지하에는 우방국과 실시간 소통 가능한 상징 공간이 들어선다. 22개국 현지 모습을 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만나볼 수 있는 미디어월이 설치된다.

방문객은 지상 조형물 사이 유리 브

릿지위를 걸어 세종로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 유리 브릿지에는 스마트글라스가 내장돼 지하에서 올라다볼 때 큰 미디어 스크린으로 작동한다.

시는 첨단 미디어기술을 활용해 22개 참전국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단순한 기념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교류의 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세종로공원은 경복궁의 넓고 트인 공간감과 대비되는 밀도 높은 도심 숲으로 되살아난다. 연면적 8768㎡, 지상 1층~지하 2층에는 휴게 및 식음 시설, 다목적 공간 등이 마련된다.

오세훈 시장은 “국가 상징이자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빛 22’를 포함한 지상·지하 공간을 동시에 열 것”이라며 “세계인이 주목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찾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3 | 해질 / 17:59

2월 4일 (화) 음력: 1월 7일

수도권 날씨 **-13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http://www.kweather.co.kr)

##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에 1725억 투입

경기도, 초120만원, 중1·고130만원 아동양육·학용품·자립지원비 등 포함

경기도가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올해 도비 205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는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예산

은 총 1천725억 원(국비 1천247억 원, 도비 205억 원, 시군비 273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가구 월 393만 원)로 높인 것이다. 자녀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

게 되며, 총 12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가구 월 247만 원)을 위한 복지급여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화돼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23만 원(2만 원 인상), 5세 이하 자녀인 경우 추가 양육비가 제공되며, 학용품비는 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3천 원을 지원한다. 연 2회(설·추석) 지급되는 생필품비는 세대당 5만~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메트로 한줄뉴스



▲푸틴 “트럼프 질서 세워 유럽 정치 엘리트들 굴복시킬 것”  
▲멕시코, 미국 관세부과에 25% 보복관세 부과 발표 /사진 뉴스시스

▲캐나다, 트럼프 관세부과에 1550억달러 보복관세 부과  
▲트럼프 관세 부과에 中 “타국 위협 많기를... WTO에 제소할 것”

▲백악관 “美 시장 접근은 특혜... 관세는 국익 보호 지렛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지하 순항미사일 기지 공개





커피·햄버거  
연초부터 줄인상  
먹거리물가 '비상'  
너



Life

대웅제약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확장  
L2



# 녹색금융 앞장, 지속가능성 강화... 금융에 ESG 퍼뜨린다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SK증권

SK증권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통해 증권사 대형사들 사이에서 녹색금융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ESG 관련 정부 장관상을 두 차례 수상했으며, 환경 경영 강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다수 이뤄내고 있다.

#### ◆증권사 중 유일한 'ESG 장관상'... 최초 SBTi 승인, IFRS S2 보고서 작성도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해 증권사 중 유일하게 ESG 장관상 2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지난달 10일 '2024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환경정보공개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날 '2024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도 종합 ESG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SK증권은 환경부에서 금융배출량을 포함한 탄소 배출 정보 공개 성과 등 우수한 환경정보공개 실적을 인정받았다. 증권사들의 ESG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사를 제치고 SK증권이 수상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성과가 중소형 증권사도 녹색금융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준호 SK증권 대표는 "이번 수상은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SK증권의 노력이 만들어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의 본질적 가치를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SK증권은 환경 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국제표준



지난 1월 9일 SK증권 임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는 '동자동 쪽방촌 이웃돌봄 프로젝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형사 제치고 ESG 장관상 2관왕 수상 탄소배출 정보 공개 성과 등 실적 인정받아 ESG위원회 중심 지속가능경영 내재화 추진

#### 보양식 나눔 등 쪽방촌 이웃에 실질적 도움 임직원 숲 가꾸기 활동, 자원순환 캠페인도

화기구(ISO)로부터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체계적인 환경경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22년 국내 단일 증권사 최초로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감축 목표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1월에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에 가입해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후 6월에는 업계 최초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분석을 포함한 신회계제도(IFRS S2)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SK증권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ESG 스페셜리스트 그룹(Specialist Group)'을 운영해 전사 다양한 조직의 참여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포함한 핵심 ESG 과제를 발굴·수행하고 있다. ESG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금융업의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사적인 ESG 경영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SK증권은 2024년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SK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며,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SK증권의 노력이 금융업계의 ESG 경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 ◆사회 곳곳에 온기 나눠... 사내 분위기부터 차근차근 쌓는 사회공헌 문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이다. SK증권은 '동자동 쪽방촌 이웃돌봄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도 지난 1월 9일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SK증권 임원들의 보양식 3종 키트(삼계탕, 추어탕, 갈비탕) 개별 포장을 시작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이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당소에서 운영하는 '온기창고'로 키트를 직접 배송하고 매대에 진열했다.

SK증권은 입사자와 승진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ESG 활동 참여를 포함시켜 조직 내 사회공헌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동자동 쪽방촌 이웃돌봄 프로젝트'에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으며, 지난해 12월 19일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모은 헌혈증 102매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해 소아암 어린이를 지원했다. SK증권은 매년 상·하반기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며, 한마음혈액원이 운영하는 헌혈 버스를 통해 임직원들의 헌혈 참여와 헌혈증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SK증권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희망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꾸준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SK증권 사회공헌 철학에 맞게 꾸준히 헌혈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족참여형 행복나눔숲' 프로그램을 통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활동을 펼치며, 환경보호와 구성원 가족 간 유대감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내 환경캠페이너 '그린히어로'는 자원순환 캠페인을 주도하며 친환경 실천을 이끌고 있다.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되는 담배꽂초 줍기 활동은 민관협력 ESG 활동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하며, 각 사업부에 배치된 '함께행복 매니저'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SK증권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근로시간 단축, 난임 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4년 5월에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 8명을 채용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천하고 있다.

박삼규 경영지원부문 대표는 "구성원의 행복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은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지난해 12월 10일 SK증권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종합 ESG 부문)을 수상하고 있다.



SK증권 IFRS(국제회계기준) S2 보고서 표지.

/SK증권

## 메트로 한줄뉴스



▲SSG 추신수 보좌역, 선수단에 특식 제공...훈련 보조에는 신발 선물  
▲'황희찬 11분 출전' 울버햄튼, 빌라에 2-0 승리...4연패 탈출 /사진 뉴시스

▲쇼트트랙 대표팀, 동계AG 결전지 하얼빈으로...'금빛 질주' 다짐  
▲'우승 눈앞' 김아림, LPGA 개막전 3R3타 선두 질주

▲프로농구 KT, KCC 꺾고 4연승...가스공사·소노 연패 탈출  
▲탁구 유망주 유예린·권혁, WTT유스 컨텐더 혼합복식 우승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KB국민은행이 먼저 시작한 점심시간 집중상담

“  
당신의 바쁜 일상,  
KB국민은행이  
여유를 찾아드립니다.  
”



KB  
점심! 시간 집중상담

12시부터 1시까지 개인종합창구 전 직원이 근무하는 제도로  
KB국민은행 전국 41개 영업점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점 찾기

**KB 국민은행**